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중국어
대조 분석**

장미정 · 진환상

우리 한국어와 비교해
함께 중국어를 봅시다

让我们一起学习韩中对照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한국어와 중국어 개관	1-1	한국어 개관: 음운 체계, 문장 구조, 품사
		1-2	한국어 개관: 조사, 시제, 부정, 높임, 화행
		1-3	현대 중국어 개관 /现代汉语的概述
		1-4	주차별 학습 내용 /各周教学内容安排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1: 자음과 모음	2-1	한국어의 음운 체계
		2-2	중국어의 음운 체계 /汉语的语音
		2-3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 대조 /汉语和韩语的音韵对照
		2-4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음운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1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2: 음절과 음운 변동	3-1	한국어의 음절과 음운 변동
		3-2	중국어의 음절과 성조 /汉语的音节结构和声调
		3-3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과 음운 변동 대조 /汉语和韩语的音节结构及音韵变化对照
		3-4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음운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2
4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구조	4-1	한국어의 문장 구조
		4-2	중국어의 어순과 문장 구조 /汉语的语序和句子结构
		4-3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 대조 /汉语和韩语的语序和句子成分对照
		4-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장 구조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5	한국어와 중국어 단어의 갈래 1: 체언, 용언, 수식언	5-1	한국어 단어의 문법적인 특성
		5-2	중국어의 품사 체계 /汉语的词类
		5-3	중국어와 한국어의 품사 체계 대조 /汉语和韩语的词类对照
		5-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갈래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1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한국어와 중국어 단어의 갈래 2: 조사	6-1	한국어의 조사
		6-2	중국어의 전치사와 접속사 /汉语的介词和连词
		6-3	중국어의 전치사와 한국어의 조사 대조 /汉语介词和韩语助词的对照
		6-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갈래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2
7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요소 1: 시간 표현	7-1	한국어의 시간 표현
		7-2	중국어의 시간 표현 /汉语的时制
		7-3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간 표현 대조 /汉语和韩语的时体对照
		7-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법 요소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1
8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요소 2: 부정 표현	8-1	한국어의 부정 표현
		8-2	중국어의 부정 표현 /汉语的否定
		8-3	중국어와 한국어의 부정 표현 대조 /汉语和韩语的否定表达对照
		8-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법 요소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2
9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요소 3: 높임 표현	9-1	한국어의 높임 표현
		9-2	중국어의 높임 표현과 호칭어 /汉语的敬语和称呼语
		9-3	중국어와 한국어의 높임 표현 대조 /汉语和韩语的敬语表达对照
		9-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법 요소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3
10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행: 요청과 거절 화행	10-1	한국어의 요청과 거절 화행
		10-2	중국어의 요청과 거절 화행 /汉语的请求和拒绝言语行为
		10-3	중국어와 한국어의 요청과 거절 화행 대조/ 汉语和韩语的请求和拒绝言语行为对照
		10-4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화행 관련 특징 관찰 및 분석

강좌 개요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본 강좌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담화 및 화행의 차이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 학습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본 강좌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교수자로서 필요한 언어 지식 역시 갖추게 될 것이다.

강좌의 학습목표

-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담화 및 화행에서의 차이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차이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하는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차이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기대효과

본 강좌는 한국어 교사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가진 언어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발음, 형태, 통사, 어휘, 담화, 화행 층위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쌓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주차

한국어와 중국어 개관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한국어 개관: 음운 체계, 문장 구조, 품사
2차시	한국어 개관: 조사, 시제, 부정, 높임, 화행
3차시	현대 중국어 개관/现代汉语的概述
4차시	주차별 학습 내용/每周教学内容安排

1차시 한국어 개관: 음운 체계, 문장 구조, 품사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음운 체계, 문장 구조, 품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개관으로 한국어의 음운 체계, 문장 구조, 품사에서 중요한 개념이나 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재외동포들도 한국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화면에 제시된 거는 제가 신문 기사의 제목 일부를 제시한 겁니다. 신문의 내용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서 중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열풍, 즉 큰 관심이 불고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중국에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한국어 확산을 위해서도 한국 기업이 활약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최근에 K-POP이나 한국 드라마와 같은 한류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도 많고요. 취업이나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함께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국어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이 쌓여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어에는 말소리가 있고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제시된 건축물은 무엇 일까요? 한국 국보 1호인 서울 숭례문입니다. 주위에 글자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해 봅시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읽거나 말한 소리를 ‘말소리’라고 하고요. 말소리를 문자로 적은 것을 글자라고 하고 한국어에서는 그 글자를 ‘한글’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1443년에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한글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모음을 만들 때 하늘, 땅, 사람을 각각 본떠서 기본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둥근 하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ㅣ”는 똑바로 선 사람의 모습을

니다. 글자를 1번에서와 같이 자음과 모음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쓰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네모꼴로 모아서 글자를 씁니다. “중국어”와 같이 3개의 소리마디가 있습니다. 이 소리마디 각각을 ‘음절’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을 모아 글자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자음 “ㄱ”와 모음 “ㅏ”가 만나 글자 “가”를 만들고 거기에 자음 “ㄴ”가 더해져 “간”이라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을 ‘받침’이라고 합니다. 자음 “ㄱ”와 모음 “ㅜ”가 만나 글자 “구”를 만들고 거기에 자음 “ㄹ”가 더해져 “굴”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때 “ㄹ”가 뭐죠? 네, 받침입니다.

앞에서 한국어의 음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만나 하나의 글자와 소리를 이루고 각각의 소리마디를 음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인 받침도 살펴보았어요.

그럼 한국어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꽃이 피었다.” “꽃만 피었다.” 두 문장에 제시된 “꽃”은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서 “꽃이”, “꽃만”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말하거나 읽을 때 쓰여진 글자와 다르게 소리가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음운은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게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각각 음운입니다. 음운인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이룬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음운은 서로 만나거나 가까이 있을 때 또는 받침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소리가 쓴 것과는 다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변하는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교체되거나 대체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웃”을 보면 발음을 할 때는 “ㅅ”가 “ㄷ”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ㅅ” 받침이 “ㄷ”라는 받침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이 교체이고요.

축약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음운이 짧아지는 건데 2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라”를 우리가 “봐라”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축약’이라고 합니다.

탈락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음운 중의 어느 하나가 없어집니다. “값”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받침을 “ㅂ”와 “ㅅ”를 함께 쓰지만 소리를 낼 때는 “ㅂ”만 남게 됩니다.

첨가는 또 어떤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와 단어 형태소가 합성될 때에 그 사이에 음운이 새로 생기는 건데요. “맨”과 “입”이라는 두 가지 형태소가 만나서

단어 “맨입”을 이룰 때는 “ㄴ” 소리가 추가가 되어서 “맨입”이 아니라 “맨닙”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한국어 문장에서 각 부분은 문법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문장에서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어찌한다”, “어떠하다”, “누구이다”, “무엇이다”와 같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속성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문에서 여러분 주어는 무엇입니까? 네, “왕군 씨”입니다. 서술어는요? “공부한다”, “아니다”가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꼭 필요한데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에서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고요. “왕군 씨가 공부한다.”보다는 “한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왕군 씨는 아니다.”라고만 제시하면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에서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는 꼭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도 있지만 목적어 외에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성분을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하고요. 이런 보충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에는 한국어에서는 “되다”, “아니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보어가 제시되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왕군 씨가 재미있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와 같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재미있는”과 같은 관형어나 서술어를 꾸며주는 “열심히”라는 부사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문장에서 꼭 써야 되는 성분은 아니어서 ‘부속 성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문장 앞에 “우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장의 어느 성분하고도 문법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된 성분입니다. 보통 감탄사가 아니면 뭐 사람의 호칭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독립어는 문장의 주성분과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문장에서 따로 떨어진 성분이기 때문에 ‘독립 성분’이라고 합니다.

앞서 문장 성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문장 성분을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할까요? 어순은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제시하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어순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문장은 최소한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서술어 앞에 와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주어인 “꽃이”가 앞에 오고 서술어인 “핀다”가 뒤에 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주어인 “그”가 앞에 오고 서술어인 “산다”가 뒤에 옵니다. 목적어를 제시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문장에서 보어의 위치는 어떤가요? 보어도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씁니다. 몇 가지 어순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수식하는 말은 수식받는 말의 앞에 제시할까요, 뒤에 제시할까요? 예문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등 수식하는 말을 “사람” 앞에 씁니다. 그리고 다섯째 예문에서 “철수 영희 길 만났다.”가 아니라 “철수가 영희를 길에서 만났다.”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단어 사이에 조사를 넣어야지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을 보면 “나는 비빔밥을 먹어 보았다.”, “비빔밥을 먹어 보았다.” “만들어 보았다.” “사 보았다.”와 같이 “아/어 보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문법 용어로는 ‘본동사’, ‘보조 동사’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본동사를 보조 동사 앞에 씁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문장 종류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된 예문을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세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문장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수미”, “책”, “읽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인 “수미가 책을 읽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미가 책을 읽습니까?”와 같은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장 “수미 씨, 책을 읽으십시오.”와 같이 수미 씨에게 책을 읽으라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수미 씨, 우리 같이 합시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문장을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어떤가요? “수미 씨가 정말 책을 많이 읽는군요.”와 같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놀라거나 감탄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달리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습니다.”, “습니까?”, “읍시다.”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 조사와 같은 서술어의 뒷부분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장 부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의문문이나 감탄문 뒤에는 어떤 부호가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물음표와 느낌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의미도 다양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예문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이 가운데 어떤 문장 안에는 서술어가 두 번 이상 포함된 문장이 있는데요. 서술어가 두 번 이상 포함된 문장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술어가 두 번 이상 제시된 문장은 몇 번입니까? 네, 3번, 4번, 5번 문장입니다. 1번과 2번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있지만 3, 4, 5번 문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경우를 '단문'이라고 하고요.

단문이 둘 이상 모여서 더 큰 문장으로 확대된 경우를 '복문'이라고 합니다. 1번과 2번은 단문, 3, 4, 5번은 복문인데요. 복문은 문장이 확대되는 것이고 3, 4번 문장과 같이 문장이 이렇게 나란히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5번과 같이 "건강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어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장을 다양하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문법과 어휘, 즉 단어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의 특성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면 한국어를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명사, 동사 같은 단어들을 문법적 특성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놓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는 크게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명사와 같이 문장에서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동사와 같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불변어이고요, 변하는 것이 가변어입니다.

한국어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용언이고 용언이 가변어에 속합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포함이 되고요. 조사 중에서는 "이다"가 형태가 변해서 이렇게 따로 가변어에 속합니다. 또 단어가 문장 속에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체언이 있고요.

다음에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수식언 그리고 여러 성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언,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는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체언과 용언, 관계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체언은 문장에

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요. 체언에는 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아버지”, “어머니”, “빵”과 같은 단어입니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로 “나”, “너”, “우리”, “이것”, “저것”이 있습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하나”, “둘”, “셋째” 등이 있습니다.

관형사는 “새 차”, “그 차”와 같이 “새”, “그” 같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고요. 부사는 “매우”, “정말”과 같이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줍니다.

“밥을 먹는다.”, “민호는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을 ‘용언’이라고 하고요.

우리 동사와 형용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동사는 “먹다”, “걷다”, “말하다”, “듣다”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형용사는 “멋지다”, “좋다”, “크다”, “작다”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용언에서는 활용이 중요한데요. 활용은 문장에서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단어를 보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었다”, “먹겠다”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먹”이고요.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인 “다”, “고”, “으니”, “었다”, “겠다” 이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표에서 “먹다”가 있습니다. 용언이 활용하는 형태 중에서 이렇게 어간에 “다”가 붙여진 것이 활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사전에는 “먹다”, “읽다”, “듣다”와 같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를 ‘표제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 활용하는 것이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법 시간에 동사나 형용사가 변할 때 사용하는 여러 어미들을 많이 배웁니다.

문장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는데요. 활용이 될 때 변하는 규칙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 변하는 규칙을 잘 설명하기 어려운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먼저 규칙 활용을 보면 “입습니다”, “입었습니다”에서 “입”은 바뀌지 않아요. 규칙 활용은 활용할 때 형태가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달라진다고 해도 그 현상을 규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불규칙 활용은 “듣습니다”, “들었습니다”와 같이 “듣다”가 “습니다”를 만났을 때 “ㄷ” 받

침은 있지만 “었습니다”를 만나면 “ㄹ” 받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뒤에 붙는 표현, 즉 어미에 따라서 어간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것을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을 먼저 볼까요? “한국어를 공부한다.”, “한국어 공부는 재미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공부한다”의 품사는 뭐죠? 네, 동사고요. “재미있다”는요? 형용사입니다.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공통적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쓰임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미적으로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사는 “집으로 가거라.”와 같이 명령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형용사는 “즐거워라.”처럼 명령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요. “우리는 집으로 가자.”와 같이 동사는 청유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즐겁자”, “기쁘자”, “예쁘자”와 같이 형용사는 청유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는 “밥을 먹는다.”와 같이 현재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형용사는 “기분이 나쁘다.”와 같이 현재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행형 표현도 보면 동사는 “가고 있다.”와 같이 현재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예쁘고 있다.”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명령이나 청유 표현, 현재 표현, 진행형 표현 등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형용사는 그렇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 문장 구조, 품사에서 중요한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문헌】

- 세종한국어1A, 공앤박주식회사,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훈민정음 표준 해설서, 2018년. 국립한글박물관
- 대조언어학, 소통, 2021년, 허용·김선정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12096154g>
- <https://www.fnnews.com/news/202211170955426851>

2차시 한국어 개관: 조사, 시제, 부정, 높임, 화행

학습 목표

- 한국어의 조사, 시제, 부정, 높임, 화행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개관으로 한국어의 조사, 시제, 부정, 높임, 화행에서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5개의 예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개의 예문을 보면 “나는 한국어를 아주 좋아요.”, “저는 작년에 중국에서 살 거예요.”, “나는 준수 씨를 만나지 마라.”, “나는 부산으로 안 이사했다.”, “수지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여러분이 오류를 먼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오류일까요?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정확한 한국어 문장이 될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 “나는 한국어를 아주 좋아요.” 여기에서 틀린 부분, 즉 오류는 어디인가요? “한국어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한국어가”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작년에 살 거예요.”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작년에 살았어요.”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틀린 부분은 “만나지 마라.”입니다. 이 부분은 “안 만난다.”, “못 만난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나는 서울로 안 이사했다.”에서 “안 이사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색해요. “이사하지 않았다.”로 수정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가 아니라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라고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는 명사나 명사 구실을 하는 말이나 문장 뒤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줍니다. 조사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격조사와 보조사, 접속 조사가 있습니다. 격조사를 먼저 살펴보면요. 격조사는 특히 조사가 붙은 말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타내 주는데요.

예문에서 “수지가”에서 “수지” 다음에 “가”가 붙어서 문장에서 주어가 되게 하고요. 격조사는 명사 등의 체언 뒤에 붙어서 문장에서 해당 부분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

어, 부사어, 독립어가 되게 합니다.

보조사는 앞말에 의미를 덧붙여주는 조사입니다. 예문에서 “수지만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건 뭘까요? 시험을 친구 중에서 여러 명이 봤는데 그중에서 수지 한 사람만 합격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줍니다.

다음으로 접속 조사를 보면 예문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와 수박이다.”에서 “와”는 사과, 수박, 두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와 동일하게 “사과랑 수박”, “사과하고 수박”, 이렇게 “와”랑 “하고”의 의미는 같고 접속 조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조사의 종류의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조사의 특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사는 동사, 형용사가 활용하는 것과 달리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다”는 활용을 하고요, 다음에 조사와 조사는 겹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예문에서 “이곳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에서는”은 “에서”와 “는”을 이어서 쓴 거고요. 그리고 조사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름답다.”와 같이 “사람”이라는 체언 뒤에 쓸 수도 있지만 “성실하지는 않다.”와 같이 용언 뒤에도 쓸 수 있고요. “너무도 성실하다.”와 같이 부사 “너무”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장 뒤에도 쓰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시간 표현, 즉 시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문법 표현입니다. 시제를 설명할 때 발화시와 사건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발화시라는 거는 “발화”가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고요. 사건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즉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제의 개념을 앞서 말한 발화시와 사건시를 통해서 보면 먼저 과거 시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예문을 보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더라도 “중국에서는 작년에 산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과 일치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는 말하는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내년에 살 거예요.”입니다. 이것을 ‘미래 시제’라고 하고요.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말의 시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동사, 형용사 뒤에 시제 표현이 사용되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쓰면 더욱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의 문장을 보면 “작년에”라는 부사가 있어서 과거 시제를 잘 나타내고요. 그리고 “왔어요”, “있어요”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의 예문을 보면 “지금”, “오늘”과 같은 부사는 문장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요”, “어요”를 통해서도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국에서 살 거예요”, “내년에”, “내일” 같은 시간 부사랑 “을 거예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데요. 그래서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는 종결형, 종결 표현과 관형사형 표현으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종결 표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예문에서 보듯이 “읽어요”, “읽습니다.”, “읽는다.”와 같이 “아요”, “어요”, “해요”, “습니다”, “는다”라는 현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사형으로도 이렇게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책을 읽는 사람이 수미이다.”에서 “읽는”, 즉 동사 뒤에 “는”을 붙여서 관형사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과거 시제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데요. 그래서 말하는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섭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종결형의 과거 표현을 사용하거나 연결형의 과거 표현을 사용하고 관형사형의 과거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 “친구를 만났다.”, “부산에 살았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가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 “만났다.”와 같이 “았다”, “었다”, “했다”, “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문에서는 “살았었다.”가 있습니다. “았었다”, “었었다”, “했었다” 역시 과거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예를 들면 “어제 친구를 만났다. 이야기하지 못했다.”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만나지만”이 아닌 “만났지만”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과거 시제가 다음과 같이 관형사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제 만난 친구”, “어제 읽은 책”과 같이 동사 뒤에 “ㄴ”나 “은”을 붙여서 과거 관형사형을 화면에 제시된 마지막 문장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발화시, 말하는 시간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를 ‘미래 시제’라고 하는데요. 미래 시제도 종결형, 관형사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종결형을 먼저 보면 “내일 여행을 갈 거예요.”와 같이 “을 거예요”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역시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는데요. 관형사형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내일 여행을 갈 사람”, “주말에 입을 옷”과 같이 동사 뒤에 “ㄴ”나 “을”을 덧붙여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발화시,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제와 관련된 ‘동작상’이 있습니다. 동작상은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동작상 중에 진행상을 보면 보통 이렇게 동작의 진행을 표시합니다. “학교에 가고 있다.” “고 있다.”, “빨래가 다 말라간다.” “아/어 가다”, “빵을 먹으면서 가거라”에서 “으면서”는 동작의 진행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상, 동작이 끝난 것, 완결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다 먹어버렸다.” “아/어 버리다”, “가 있다.”와 같이 “아/어 있다.”, “빵을 먹고서 가거라.” 이것은 “먹은 후에 가거라.”와 같은 먹은 후의 의미죠. “고서”를 통해서도 동작이 완결된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쓰여서 언어 내용의 의미 전체나 일부를 부정하는 문법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래에 “수영을 하다.”라는 긍정이 있습니다. 이 긍정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다양한 부정문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수영을 안 한다.”, “수영을 못 한다.”, “수영을 하지 마라.”, “수영을 하지 말자.”와 같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정문을 보면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안”, “못”, “지 마라”, “지 말자”와 같은 부정 표현이 있는데요. 부정문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부정문은 크게 이렇게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이 있습니다. “안” 부정문은 “안 먹다”, “안 좋다”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 앞에 “안”을 쓰고요 이것을 ‘짧은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부정은 “먹지 않다”, “좋지 않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안” 부정은 보통 단순히 내용을 부정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은 길이 차이인데요. “안 먹다”, “먹지 않다”만 비교해도 “안 먹다”가 짧습니다. 부정문의 길이를 비교해 문법적으로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그리고 “못” 부정은 어떤 외부 상황이나 능력 부족으로 “할 수 없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만 쓸 수 있는데요. “못 먹다”라고 짧은 부정으로 쓸 수 있고요. “먹지 못하다”와 같이 긴 부정을 쓸 수 있습니다.

“말다” 부정 같은 경우는 짧은 부정은 없고 긴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지 마라”, “지 말자”를 쓸 수 있고요. 이것은 금지를 나타냅니다.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문장 “아버지는 회사에 갔다.”에서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인 아버지를 높여서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갔다.”가 아니라 “회사에 가셨다.”와 같이 아버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방,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다.”가 아니라 대화를 듣고 있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와 같이 높일 수 있습니다.

높임법의 종류는 ‘주체 높임법’으로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본 문장에서처럼 명사 뒤에 “께서”나 그다음에 서술어에 “(으)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편찮다”, “잡수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자의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대화를 듣고 있는 상대가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습니다”를 쓴 것처럼 이렇게 “습니다”와 같은 문법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 활용을 할 때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 어미였는데요. 종결 어미 표현을 달리해서 높임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상대 높임법’이 특히 발달하였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안 높여 말하는 방법입니다.

“수지야, 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 이걸 수지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말로 “없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할머니에게 “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는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요.”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상대 높임은 서술어의 어미변화를 통해서 높임을 나타냅니다. 상대 높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 격식적이거나 비격식적이냐에 따라서도 높임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격식적이다’라는 거는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공공장

소나 직장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격식체’는 상대방에게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 “앉으십시오”, “앉으시오”와 같이 높이는 상황에 격식체가 쓰이고요. 이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단정적인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경우에는 “앉게”, “앉아라”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격식체’는 우리가 예의와 격식을 덜 차려도 되는 상황인데요. 일상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 상황에서 주로 쓰입니다. 보통 “아요/어요”는 높이는 상황에서 쓰이고 “아/어”와 같은 반말은 높이지 않는 상황에 쓰이는 비격식체입니다. 그리고 “아요/어요”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특별한 어휘를 사용해서 남을 높이거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일 수도 있는데요. 예문을 보면 “할머니, 차 드세요.” 중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가 있습니다. 네, “드세요”라는 거는 “마시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시다”라는 건 뭐죠? “있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이런 높임 표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다”는 “주다”, “모시다”는 “데리다” 그리고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에서 “성함”은 무엇인가요? 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생신이 언제입니까?”에서 “선생”에 이렇게 “님”을 붙이고 “생신”은 생일의 높임 표현입니다.

화행이라는 거는 언어 행위입니다. 발화 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거죠.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 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때 그 대화를 듣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청을 할 때 우리는 화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 관계자의 관계가 친한지, 친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지위, 권력, 힘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청하는 내용, 부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화행, 즉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 화행을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네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준수야,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2만 원만 빌려줄래?”, “2만 원만 빌려주면 좋겠어.”와 같이 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친구 사이에 빌려달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니까

“빌려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친하지 않다면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같은 부탁이라도 친한 정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하지 않다면 좀 조심스럽게 “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빌려줄래?”와 같이 친구의 의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가 빌려주면 좋겠다.”와 같이 바람, 소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면 1번은 가능할 것 같고 친하지 않다면 2번, 3번, 4번 문장을 사용해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돈을 빌려달라는 정보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문장과 같이 “준수야,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2만 원만 빌려줘.”, “미안한데 2만 원만 빌려줘.”, “미안한데 내가 현금이 없어서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앞에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 이유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5번에서처럼 이유를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 문장에서처럼 “미안하다”와 같이 듣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처럼 이렇게 부담도 줄여주고 내가 돈을 빌리는 이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2만 원만 빌려줘.”라고 한 것과 이유를 말하고 그다음에 “미안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을 썼을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대화 상대자가 친하면 빌려달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거나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이유나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을 써서 더 공손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거절 화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현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상황인데요. 친구가 “준수야,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준수가 대답을 하면 유미의 기분이 어떻게요? “나도 지금 현금이 없네.”, “미안해.”, “미안한데 나도 지금 현금이 없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다릅니다. 친구니까 나이는 같고요. 친한지혜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은 다를 것 같습니다. 2만 원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부담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2만 원보다 금액이 아주 더 커지면 부담스러운 부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정적으로 거절할 때 유미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 “나도 지금 현금이 없다.”처럼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안해.” 사과를 하고 “미안한데 나도 지금 현금이 없다.”와 같이 이유를 같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단정적인 거절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 제시, 세 번째는 사과하기, 네 번째는 사과하기와 이유 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라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거절하면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절에 대한 응답으로 “미안해.”라는 말만 들어도 궁금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절 방법은 이유를 이야기해준다거나 아니면 사과와 이유를 같이 제시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어의 조사, 시제, 부정, 높임, 화행에서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문헌】

- 세종한국어1A, 공앤박주식회사,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훈민정음 표준 해설서, 2018년. 국립한글박물관

3차시 현대 중국어 개관/现代汉语的概述

학습 목표

- 掌握现代汉语的定义及其主要语法特征. 현대 중국어의 정의와 주요 문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同学们,大家好,从今天开始,我们来一起了解一下现代汉语的一些语法特征,并通过对韩语语法的对照分析,来探讨一下汉语和韩语在语法上的一些对照特征.

首先,在进入正式的学习之前,我们先来了解一下现代汉语的定义.汉语是汉民族的语言,那么,现代汉语就是现代汉民族所使用的语言.现代汉语既有多种方言,也有民族共同语.现代汉语民族共同语,就是以北京语音为标准音,以北方话为基础方言,以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作为语法规范的普通话.

这短短的三句话,其实包含了许多内容.首先,以北京语音为标准音,这也就确定了现代汉语普通话的语音特征,也就是说,现代汉语的语音主体是北京地区的语音.但是,有一点需要注意,那就是北京语音不一定是标准现代汉语发音,这是因为北京地区也存在着方言语音,如北京土话等,而这些方言的许多语音,并没有被列入普通话的标准语音.

第二,现代汉语是以北方话为基础方言,这也就确定了现代汉语的词汇基础.中国南北地区方言的差异很大,而尤其以北方方言遍布的地区更为广泛,影响力也更大,自然而然地,北方方言就成为了现代汉民族共同语,也就是普通话的基础方言.

第三,以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作为语法规范,这也就确定了现代汉语的语法基础.从古代到现在,汉语的语法结构发生了很大的变化,古代汉语,也就是我们所说的文言文,在现代社会,中国人基本上听不懂.因此,作为民族共同语的普通话,只能以现代白话文著作作为语法规范.

那么,在中国的历史长河中,现代的民族共同语普通话是如何形成的呢?我们来一起看一下现代汉民族共同语的发展变化过程.民族共同语作为一个民族共同体所通用的语言,它并不是现代社会的产物,在中国古代就已经产生了.

汉族在先秦时代就存在着古代民族共同语,那个时候称为“雅言”.从汉代开始,汉民族共同

语被称为“通语”，而到了明代则改称为“官话”，辛亥革命之后的民国时期，汉民族共同语则称为“国语”，1949年中华人民共和国成立之后，汉民族共同语则称为“普通话”。

通过上述的发展变化过程，我们可以了解到，汉民族共同语在中国的历史上是一直存在的，只是各个历史时期的称呼不同而已。现代社会，中国汉民族共同语是普通话。

前面我们介绍了汉民族共同语的发展过程，从古代到现代，汉民族共同语的名称发生了改变，但是它的本质没有变化，即，无论是雅言、通话、官话，还是国语，都是汉民族共同体的通用语言。因此，现在我们所说的普通话，也就是汉民族共同体使用的语言。

但是，除了共同语以外，汉语还存在着许多方言，俗称“地方话”。汉语的方言只通行于一定的地域，不是独立于民族语言之外的另一种语言，是局部地区使用的语言。汉语的方言也经历了漫长的演变过程，从现今来看，汉语的方言，基本上可以划分为七大方言区，这七大方言区分别为：北方方言、吴方言、赣方言、湘方言、客家方言、闽方言、粤方言。

这里我们看到的是现代汉语七大方言分布图。这张分布图显示了各个方言的主要分布地区。方言只通行于一定的地域，不是独立于民族语言之外的另一种语言，是局部地区使用的语言。我们在这里不研究方言，主要研究现代汉民族共同语—普通话，所以，为了以后课堂说明的方便，我们将现代汉民族共同语普通话简称为“汉语”。

那么，现代汉语普通话作为汉民族的共同语，它具有哪些特征呢？我们可以从语音、词汇、语法三个方面来大概了解一下。首先，从语音方面来看，现代汉语的语音没有复辅音，元音占优势，有声调。其次，从词汇方面来看，汉语语素以单音节为基本形式，广泛运用词根复合法构成新词，双音节占优势。最后，从语法方面来看，现代汉语语序和虚词是表达汉语的主要语法手段，词、短语和句子的结构原则基本一致，词类和句法成分不是简单的对应关系，量词十分丰富。

除了这些特征以外，现代汉语还具有许多独特的特征。因此，在今后的时间里，我们将从语音、词汇以及语法三个方面，对现代汉语的特征进行分析说明。同时，为了方面中国人学习韩语，以及帮助韩国人学习汉语，并为从事韩语和汉语教学工作的同仁提供一些参考和借鉴，我们在分析完了汉语的语法特征之后，会将汉语的语法特征与韩语的语法特征进行对照说明，从中发现两国语言的一些相似之处和一些不同之处，从而让更多的人可以更深入地了解 and 掌握汉语和韩语。

【참고문헌】

- 처우메이린(201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대조와 발음교육 방안,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实用现代汉语语法 作者:刘月华/潘文娉/故韡 出版社:商务印书馆.
- 한·중 인칭대명사의 대비 연구, 등염추,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 석사학위논문.
-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제/상 표지 대응관계 고찰, 김종혁 한국중국문화학회, 2009, 中國學論叢
- https://inews.gtimg.com/newsapp_bt/0/11006338552/1000

4차시 주차별 학습 내용/每周教学内容安排

학습 목표

- 熟悉每周的具体课程内容的安排。주차별 학습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了解完了现代汉语的基本定义和特征之后，接下来我们来看一下每周的教学内容的安排。第二周，我们将会介绍一下汉语的语音特征。语音，是指人类通过发音器官发出来的、具有一定意义的、目的是用来进行社会交际的声音。汉字作为表意文字，是用一定体系的象征性符号来表示语义的文字。

那么，从古代到现代，汉语是如何给汉字注音的呢？中国人从小就会学习汉语拼音，外国人在学习汉语的时候，也必须学习汉语拼音，那么，汉语拼音是什么？汉语拼音方案指的是什么？我们也将简单地介绍一下汉语拼音方案。

汉语的语音，主要由哪几个部分构成的呢？在汉语中，韵头、韵腹、韵尾指的是什么，又如何进行区分呢？另外，中国传统的语音学研究中，总会提到一组概念—清音和浊音，那么什么是清音，什么是浊音呢？除此以外，汉语的声母如何区分，z和zh，c和ch，s和sh等在发音上有何不同？

通过对这些汉语语音相关知识的学习，在对汉语的语音有一个大概了解的基础上，我们将会对韩语和汉语的语音进行对照研究。通过对照研究，我们可以弄清为什么中国人学韩语时，ㅁ, ㅂ, ㅅ容易混淆，而又为什么中国人说韩语时，总是会出现卷舌现象。以上就是我们第二周的主要学习内容。

了解完了汉语的语音之后，接下来的第三周，我们将会对汉语的音节结构和声调进行分析说明。什么是音节结构？汉语的音节结构如何划分？外国人在学习汉语的时候，感到比较困难的部分是声调。那么，什么是声调？汉语为什么会有声调？声调的意义在哪儿？汉语有几个声调，各个声调的调值如何？声调之间如何进行区分？

另外，汉语的发音在实际的语言对话中，总会发生一些变化，那么，汉语存在哪些音韵变化？中国人通常所说的轻声和儿化指的是什么？声调在实际的语言生活中，有时候根据出现环境的不同，声调会发生变化，这就是变调。那么，现代汉语中存在哪些变调？从音节结构来看，韩语和汉语的音节结构有何不同？汉语的音韵变化主要是声调的变化，那么韩语

的音韵变化有哪些呢？通过第三周的学习，上述这些问题都能够得到解决。

第二周和第三周的教学内容主要是涉及语音方面的内容。从第四周开始，我们将会进入句子层面的讲解。第四周的主要教学内容是汉语的句子结构和语序。世界上存在着许多语言，在这些语言当中，很多语言是具有共同特征的。如果对这些语言进行归类的话，世界上的语言可以分成哪几种类型？而在这几种类型的语言中，汉语属于哪种类型的语言？

另外，根据语言的不同，表达的顺序、单词的顺序也会有所不同，例如，中国人说“我吃饭”，但是韩国人说“我饭吃”。那么，汉语的基本语序是什么？另外，我们都知道，汉语的语序是不能随意变动的，例如，“我吃饭”不能说成“我饭吃”。而“我爱你”和“你爱我”表达的意义是不同的。

那么，汉语的语序为什么不能随意变动？汉语语序影响因素有哪些？对于一个句子，我们可以进行划分，分成一些句子成分。那么，汉语的基本句子成分是什么？还有，汉语在表达的时候，一个句子如果太长的话，理解起来不方便，因此中间总会加入一些间隔或标点符号，这就是汉语的标点符号。汉语的标点符号如何区分？

了解完了汉语的语序和句子成分之后，我们将会进行韩中对照分析，看看汉语和韩语的基本语序有何不同？汉语的补语和韩语的补语概念是否一样？同时，我们还会对汉语和韩语的标点符号进行对照，看看汉语的标点符号和韩语的标点符号有何不同？通过第四周的学习，相信大家对汉语和韩语的语序，以及句子成分会有一个比较深入的理解。

第五周我们将会对汉语的词类进行分析，主要了解一下汉语的动词和形容词的语法特征。每个语言都有自身的划分标准，那么，汉语的词类划分标准是什么？汉语可以分成哪几类？动词是词类中一个最为重要而基本的类别。那么，汉语的动词具有哪些语法特征？汉语的动词如何分类？

另外，汉语的动词中一个非常重要的概念就是能愿动词。那么，汉语的能愿动词是什么？有哪些语法特征？另外，形容词也是词类中一个非常重要的范畴。汉语形容词的特征是什么？什么是“区别词”？通过对上述这些内容的学习，我们可以对汉语的动词和形容词有一个比较深入的了解。

而在了解完了汉语动词和形容词的特征之后，我们将会对汉语和韩语的动词和形容词进行对照分析，看看汉语和韩语的动词有哪些不同特征。汉语的动词和形容词是能够直接作为主语的，那么，韩语的动词和形容词能否直接作为主语呢？

最后，从中韩对照的角度来看，汉语的能愿动词对应的是韩语的哪个词类？通过第五周的学习，我们不仅能够深入地了解汉语动词和形容词的一些主要语法特征，而且也能够对汉语

和韩语动词、形容词的对照特征有一个清晰的认识。

第六周我们主要学习汉语的连词和介词。从前面的词类分类，我们会了解到汉语的介词属于虚词的一种，没有实际意义，只是起到某种语法功能。那么，汉语的介词主要表达哪些语法功能呢？汉语介词的语法特征是什么？汉语的动词和形容词大部分都能够重叠，那么汉语的介词也能重叠吗？“小明不在家”和“书在桌子上放着”的‘在’有何不同？

另外，汉语的连词指的是什么？汉语的连词和介词有何不同？在了解完汉语介词的语法特征之后，我们将会从中韩对照的角度进行分析，看看汉语的介词对应的是韩语的哪个词类，汉语的连词和韩语助词的句法位置有何不同？

另外，汉语的介词能够结合使用吗？韩语的助词呢？是否能够结合使用？汉语的介词是否跟韩语的副词格助词——对应？通过对第六周的学习，我们将能够深入地了解汉语介词的语法特征，以及它在韩语中的对应词类是什么，以及如何对应。

第七周我们主要学习汉语的时体特征，以及汉语和韩语时体的对照特征。首先，我们会了解一下时制指的是什么？汉语是否存在时制？其次，动态助词是汉语中一个非常重要的概念，那么，汉语的动态助词指的是什么？汉语有哪些动态助词？各个动态助词的语法特征是什么？“了”是汉语中使用频率非常高的一个动态助词，那么，动态助词“了”有哪些语法特征？同样，动态助词“着”有哪些语法特征？动态助词“过”有哪些语法特征？

在了解完了汉语动态助词的语法特征之后，我们将会从中韩对照的角度进行分析，汉语的“了”通常容易被认为是过去时表达方式，那么，汉语的“了”与韩语的过去式有哪些对照特征？汉语的将来时，也就是未然时态，如何表达？汉语表示过去经验的“过”与韩语如何对应？通过对第七周汉语时态特征的学习，我们将能够深入地了解汉语动态助词的语法特征，同时也可以对汉语和韩语在时体表达上的对照特征有一个清晰的认识。

第八周的学习内容是汉语的否定表达。否定是日常语言生活中一个非常重要的范畴。那么，汉语的否定表达有哪些形式？汉语的否定副词“不”的语法特征是什么？汉语否定词“没”的语法特征是什么？汉语的“不”和“没”的区别特征是什么？

在了解完了汉语否定表达的语法特征之后，我们将会从中韩对照的角度，对汉语和韩语的否定表达进行对照分析。看看汉语和韩语否定表达的形式特征有何不同，以及汉语和韩语否定词的句法位置有何不同。

另外，我们还会分析一下汉语的可能补语结构如何翻译成韩语。汉语的否定词“没”和韩语的否定词“못”有何不同？通过对第八周的学习，我们将会对汉语的否定表达有一个比较深入的理解，同时对于汉语和韩语否定表达的对照特征，会有一个清晰的认识。

第九周的教学内容是汉语的敬语和称呼语。敬语的含义是什么？现代汉语的敬语有哪些类型？表述性敬谦词指的是什么？汉语表示尊敬意义的句型是什么？另外，韩语是敬语表达比较发达的语言，敬语表达很有体系。

那么，汉语和韩语敬语表达的共同之处是什么？韩语和汉语敬语表达最大的区别在哪儿？韩语敬语表达中的“阶”有哪些类型？汉语和韩语的称呼语有哪些对照特征？通过第九周的学习，我们能够深入了解汉语和韩语在敬语表达上的一些对照特征。

第十周我们主要学习汉语的拒绝和请求言语行为。“拒绝”和“请求”是日常生活中非常重要的两种言语行为。那么，何谓请求言语行为？汉语请求言语行为的基本结构是什么？汉语的起始言语行为有哪些类型？汉语的辅助言语行为有哪些类型？汉语中心行为语有哪些策略？拒绝言语行为有哪些类型？

“诚意拒绝”和“虚假拒绝”指的是什么？汉语和韩语在请求言语行为的表达上有何不同？汉语和韩语在起始行为语上的最大区别是什么？汉语和韩语在辅助行为语上有哪些共同之处？通过第十周的学习，我们将能够对汉语的拒绝和请求言语行为有一个比较深入的了解，同时也对汉语和韩语在拒绝和请求言语行为上的对照特征有一个比较清晰的认识。

【참고문헌】

- 처우메이린(201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대조와 발음교육 방안,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实用现代汉语语法 作者:刘月华/潘文娒/故韡 出版社:商务印书馆.
- 한-중 인칭대명사의 대비 연구, 등염추,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 석사학위논문.
-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제/상 표지 대응관계 고찰, 김종혁, 한국중국문화학회, 2009, 中國學論叢.

Lecture

1차시 한국어 개관: 음운 체계, 문장 구조, 품사

Hello, everyone? This class is an overview of the Korean language and examines important concepts such as phonology, syntax, and parts of speech.

Korean is a language spoken by Koreans. However, overseas Koreans liv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China, Japan, and Russia, also use Korean. And many foreigners who love Korea also speak Korean. Especially in China, there are a lot of people learning Korean.

Presented on the screen are parts of headlines of newspaper articles. The articles seem to say that there is a craze for the Korean language in China due to the popularity of Korean dramas. And if you look at the bottom, there are many Korean companies in China, and they are active in spreading the Korean language.

As Hallyu culture such as K-POP and Korean dramas have recently become popular, many Chinese people are learning Korean. Many Chinese people learn Korean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job or studying abroad. As we learn Korean together, I hope that you will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and build up your Korean skills so that you can speak Korean accurately and fluently like Koreans.

Korean has speech sounds and syllables. What do you think this piece of architecture is? It is Korea's National Treasure No. 1, Sungnyemun Gate in Seoul. There are syllables around it. Would you like to read them? Yes, they read “우리 함께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해 봅시다.”

Now, the sounds we read or speak like this are called ‘말소리’. Speech sounds that are written down are called letters, and those letters are called Hangeul in Korean. Hangeul was created in 1443 by King Sejong, the king of Joseon. Hangeul has vowels and consonants.

When King Sejong the Great made vowels, he created the basic letters by imitating the sky, earth, and people, respectively. ‘아래아’ is made by imitating the shape of the round sky. And “|” is modeled after a figure of a person standing upright. Lastly, “—” is modeled after the shape of flat land.

“아래아, |, —,” these basic syllables are combined to create the rest of the vowels. For example, if you write lower “아래아” over “—”, it becomes “ㅏ”, and if you write it on the right side of “|”, it becomes “ㅑ”. If “ㅏ” and “ㅑ” are made in this way, placing “아래아” with “ㅏ” and “ㅑ” makes “ㅛ” and “ㅕ”. Vowels in Korean were created very systematically by combining the basic syllables “아래아, |, —,” which were created based on the sky, man and earth.

Next, let's look at principles of making consonants. King Sejong the Great made the basic letters of consonants after observing the shape and movement of human speech organs. That is, “ㄱ, ㄴ, ㄷ, ㄹ, ㅁ” are created following the shape of the tongue, lips, teeth, and throat. And consonant syllables other than the basic syllables, “ㄱ, ㄴ, ㄷ, ㄹ, ㅁ”, are created by adding strokes to them. For example, adding an stroke to “ㄱ” makes “ㅋ”, which is a stronger sound than “ㄱ”.

As said above, after King Sejong the Great made the basic characters, he considered the similarities and strength of different sounds, and made several more characters by adding strokes to the basic ones. Hangeul, which was created in this way, is evaluated as the most scientific and excellent alphabet in the world.

There are 21 vowels in Korean. Join me in reading the vowels aloud. At this time, let's focus on the shape of the lips and the position of the tongue. Shall we read the first line of vowels presented together?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Do the shape of your lips or the position of your tongue change as you pronounce these vowels? No, it doesn't. Vowels like these are called short vowels. Short vowels do not change the shape of the lips or the position of the tongue while making the sound.

Let's read the second line. At this time, let's focus on whether the shape of

the mouth changes or the position of the tongue changes. "ɪ, ʏ, ʊ, ʌ, ɐ, ɤ, ɜ, ɞ, ɟ, ɠ, ɨ, ɩ, ɪ, ɹ, ɻ" Does the shape of your mouth or the position of your tongue change when you pronounce these vowels? Yes, vowels that change the shape of the mouth or the position of the tongue when pronouncing them are called diphthongs.

All together, there are 21 short vowels and diphthongs in Korean. What do Korean consonants sound like? Let's read them together.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ㄲ,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Well done. There are 19 consonants in Korean.

How do you write syllables using consonants and vowels in Korean? Shall we take a look at the screen? There are letters 1 and 2. Can we write consonants and vowels side by side like in number 1? This doesn't work.

Shall we read number 2? Can you read the second one? Number 2 says “중국어”. Instead of writing consonants and vowels side by side as in No. 1, the syllables in No. 2 is written by putting consonants and vowels together in a square shape. Like in “중국어,” Korean also has three sound blocks. Each of these sounds blocks is called a syllable.

Like I said, Korean is made up of consonants and vowels. The consonant “ㄱ” and the vowel “ㅏ” meet to make the letter “가”. In addition to that, the consonant “ㄴ” is added to make the syllable “간”. In this case, the consonant that comes after the vowel is called ‘받침’. The consonant “ㄱ” and the vowel “ㅜ” meet to make “구” and “ㄹ” is added to it to make the character “굴”. What is “ㄹ” here? It is 받침, the final or ending consonant.

So far, we've looked at Korean syllables. Vowels and consonants meet to form one syllable and sound, and each sound node is called a syllable. And we've also looked at consonants that come after vowels, 받침.

Shall we read some Korean sentences together? “꽃이 피었다.” “꽃만 피었다.” The “꽃” presented in the two sentences sounds like either “꽃이” or “꽃만” depending on the sound that follows it. As such, there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sounds of letters change from that of their written form when speaking or reading Korean. These are called phonological changes.

A phoneme is the smallest unit of sound that distinguishes the meaning of a word. Consonants and vowels are phonemes, respectively. We learned earlier that consonants and vowels, which are phonemes, meet to form syllables. The sounds of phonemes may differ from their written forms when they meet, or are close to each other, or when they are 받침, as we saw before.

There are four types of phonological changes in which the sounds of consonants and vowels change. First, there is a phenomenon of replacement or substitution, in which one phoneme is replaced by another. When “옷” is pronounced, “ㅅ”, which is part of the word, sounds like “ㄷ”. The “ㅅ” 받침 is changed to “ㄷ”.

Contraction means that two phonemes are reduced to one. So we can pronounce “보아라” as “봐라”. This is called contraction.

Deletion is the disappearance of a sound. So, one of two phonemes is lost. When we write the word “값”, we use two final consonants, “ㅂ” and “ㅅ”, but when we pronounce it, only “ㅂ” is pronounced.

Insertion is adding a sound. When a word and a morpheme are combined, a new sound is created between them. When the two morphemes “맨” and “입” meet to form the word “맨입” the sound “ㄴ” is inserted. It's pronounced “맨닙” rather than “맨입.”

In Korean sentences, each part plays a certain grammatical role. First, the ‘subject’ corresponds to “누가” and “무엇” in the sentence. And there are predicates that indicate the action, state, quality, or property of the subject, such as “어찌한다”, “어떠하다”, “누구이다”, and “무엇이다”.

What is the subject of the example sentence shown on the screen? It is “왕군 씨.” What are the predicates in this sentence? There are “공부하다” and “아니다”. A sentence needs the subject and a predicate. And in the first sentence,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 there are words corresponding to “무엇을” and “누구를”. We call these the ‘object’. Rather than “왕군 씨가 공부한다,” you can convey the meaning more accurately when you say “왕군씨가 한국어를 공부한다.”

And in the second sentence, people cannot understand this sentence if you just say, “왕군 씨는 아니다.” A sentence must have one subject and one predicate. Depending on the type of predicate, there are predicates that require an object, but there are also predicates that require a constituent that complements and explains the subject.

A constituent that complements the subject is called a ‘complement’. Predicate words that require such complements include “되다” and “아니다” in Korean. In the second sentence, it is not a sentence unless the complement of “한국 사람이” is presented. Therefore, subject, predicate, object, and complement are called main constituents because they are essential in a sentence.

In the third sentence, you can use an adjective such as “재미있는” to modify an object or an adverb like “열심히” to modify a predicate, such as “왕군 씨가 재미있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A sentence can be formed even without an adjective and an adverb. Those that are not required in a sentence are called adjuncts.

Let's look at the last example. There is an expression “우와”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This part is an independent constituent that has no direct grammatical relation to any element of the sentence. Independent elements are usually used when addressing a person or as an ‘감탄사 (interjection)’. ‘독립어’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main elements and adjuncts of a sentence. An independent element is separate from a sentence.

We’ve just looked at sentence elements. In what order should the sentence elements be presented to make a Korean sentence? Word order is the order in which sentence elements are presented in a sentence. Let's take a look at Korean word order.

A Korean sentence consists of at least one subject and one predicate. However, in Korean, the subject must come before the predicate.

In the first sentence, the subject “꽃이” precedes and the predicate “핀다” follows. In the second sentence, the subject “그” comes first and the

predicate “산다” follows. The object in a sentence is placed between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What is the position of the complement in the following sentence? The complement is also writte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Let's look some more at word order.

In Korean, should a modifier come before or after a word that is modified? In the example sentence, there is the expression “사랑하는 사람”. We place modifying words such as “사랑하는 사람” or “좋아하는 사람” before “사람.” And in the fifth sentence, it is not “철수 영희 길 만났다,” but instead, you need to put a postposition between the words to make a correct sentence, such as “철수가 영희를 길에서 만났다.”

In the last example, like “나는 비빔밥을 먹어 보았다,” “비빔밥을 먹어 보았다” “만들어 보았다” and “사 보았다”, we can use the expression “아/어 보았다.” In grammatical terms, these are called main verbs and auxiliary verbs. In Korean, a main verb is placed before an auxiliary verb.

Next, there are five types of sentences in Korean. Take a look at the example provided first. I'll give you a moment.

The words included in the sentence are all “수미”, “책”, “읽다.” Like the first sentence, “수미가 책을 읽습니다.”, sentences that state the thoughts or facts of the speaker are called declaratives. And you can ask questions. A sentence like “수미가 책을 읽습니까?” is called an interrogative.

In the third sentence, “수미 씨, 책을 읽으십시오.”, one can ask Sumi to read a book. A sentence that requires someone to do something is called an imperative. A sentence in which the speaker asks the other person to do something with him or her, such as “수미 씨, 우리 같이 합시다.” is called a suggestive sentence.

How about the last sentence? A sentence expressing surprise or admiration for a fact, such as “수미 씨가 정말 책을 많이 읽는군요.” is called an exclamatory sentence.

How can we distinguish the types of sentences? How can we express the

same meaning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We use various expressions such as “습니다.”, “습니까?”, and “읍시다,” at the end of predicates such as verbs, adjectives, and particles.

Punctuation may also be used. Look at punctuation used after a question or exclamatory sentence. The punctuation marks used are a question mark and an exclamation mark. The same meaning can be expressed in different sentenc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types of sentences. Please read the example sentences 1 through 5 first. Some of these sentences contain more than one predicate. Look for sentences that contain more than one predicate. I'll give you a minute.

Which sentences have more than one predicate? Sentences 3, 4 and 5. Sentences 1 and 2 only have one subject and one predicate, but sentences 3, 4, and 5 have more. When a sentence has one subject and one predicate, it is called a simple sentence.

When two or more simple sentences are grouped together and expanded into a larger sentence, it is called a complex sentence. Numbers 1 and 2 are simple sentences, and numbers 3, 4, and 5 are complex sentences. Complex sentences are extensions of sentences, and sentences can be connected side by side like sentences 3 and 4. Sentences such as number 5, “건강은 중요하다.” can go inside the sentence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

We've just looked at Korean sentences. It is important to know grammar and vocabulary in order to write sentences accurately and in various ways. If we know characteristics of words better, we will be able to speak Korean more accurately and in a variety of ways.

Parts of speech, which is a collection of words such as nouns and verbs with common grammatical characteristics, can be largely classified based on form, function, and meaning. Some words, like nouns, do not change in sentences. Words like verbs do change. Words that do not change are called ‘불변어’, and words that do are ‘가변어’.

Words that change their forms in Korean sentences are verbs, which belong to '가변어'. '용언' include verbs and adjectives. "이다" among particles belongs to '가변어'. Also, depending on the function that a word plays in a sentence, there are '체언' that can be used mainly as subjects or objects.

Next, there are '수식언' that modify other constituents, '관계언' that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ents, '독립언' that are used independently of other constituents in a sentence, and '용언' that are used as predicates.

Finally, words can be divided into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depending on what each word means.

In our lecture,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체언', '용언', and '관계언'. 체언 plays the role of subject or object in a sentence. In the category of 체언, there are pronouns and numerals. '명사' is a word that gives the name of a person or thing, such as "아버지," "어머니," or "빵".

A pronoun is a word that takes the place of the name of a person or thing. It includes "나", "너", "우리", "이것", "저것". Numerals are words that indicate quantity or order. "하나", "둘", "셋째", etc.

관형사 such as "새" and "그" in "새 차" and "그 차" modify words before 체언. Adverbs like "매우" and "정말" modify verbs or sentences.

Verbs and adjectives are used in the sentences "밥을 먹는다" and "민호는 멋지다." Verbs and adjectives function to describe the subject of a sentence. This is called '용언'.

Let's look at our verbs and adjectives in more detail. Verbs indicate the action of people or things, such as "먹다", "걷다", "말하다", "듣다". Adjectives indicate the state or quality of a person or thing, such as "멋지다", "좋다", "크다", "작다".

Conjugation is important. It involves a change in the form of a verb in a sentence. If you look at the words below, "먹다", "먹고", "먹으니", "먹었다", "먹겠다", there are parts that do not change. The part that does not change is "먹". We call this '어간', the changing parts such as "다", "고", "으니", "었다", "겠다" are '어미'.

In the table, we have “먹다”. Among the forms used in 용언, the one with “다” attached to the stem is the most basic, and is called the basic form. In the dictionary, the basic forms, “먹다”, “읽다”, “듣다”, are presented. We call them 표제어 (lemma).

The most difficult part for non-native Korean learners to learn in Korean is conjugation. So, in grammar class, we learn a lot of different endings that we use when changing verbs or adjectives.

In sentences, verbs and adjectives change their forms. If the rules that change when a verb is conjugated can be explained well, this is regular conjugation. There are irregular conjugations whose rules are difficult to explain.

First, let us look at regular conjugation, “입” in “입습니다” and “입었습니다” does not change. Although stems or endings are unchanged or changed in regular conjugation, the phenomenon can be explained in a regular way.

Let's look at an example of irregular conjugation,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When “듣다” meets “습니다”, the final consonant is “ㄷ” but when “듣다” meets “었습니다”, the “ㄷ” changes into “ㄹ”. In this example, the form of the stem changes depending on the ending. This is called irregular conjugation of 용언.

In irregular conjugation, there are cases where stems or endings change. Sometimes both stems and endings change. Let's look at an example first. “한국어를 공부한다.”, “한국어 공부는 재미있다.”

What is the part of speech of “공부한다” in the first sentence? It's a verb. And for “재미있다”? It is an adjective. In Korean, verbs and adjectives are commonly used as predicates in sentences, and their form changes according to their use.

Let's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verbs and adjectives. Semantically, verbs denote action. Adjectives indicate a quality or condition of a person or thing. While a verb can be used to express a command like “집으로 가거라”, an adjective cannot be used to express a command like “즐거워라”. While a verb can be used to express a suggestive such as “우리는 집으로 가자”, an

adjective cannot like “즐겁자”, “기쁘자”, “예쁘자”.

The same is true for present tense. Verbs can bear present tense, such as “밥을 먹는다”. However, adjectives cannot, such as “기분이 나쁘다.” The same goes for progressive expressions. Verbs can bear the present continuous tense, such as “가고 있다.” On the other hand, adjectives cannot, such as “예쁘고 있다.”

Verbs are combined with endings that indicate a command, request, present expressions, and progressive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adjectives are not.

In this lecture, we’ve looked at important concepts of the phonological system, sentence structure, and parts of speech of the Korean language.

2차시 한국어 개관: 조사, 시제, 부정, 높임, 화행

Hello, everyone? This time, as an overview of the Korean language, we will look at important concepts of particles, tense, negation, honorific, and speech act of the Korean language.

Five example sentences are presented on the screen. Here are the five examples. “나는 한국어를 아주 좋아요.”, “저는 작년에 중국에서 살 거예요.”, “나는 준수 씨를 만나지 마라.”, “나는 부산으로 안 이사했다.”, and “수지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Please look for errors in these examples. I'll give you a minute to look for them.

Which parts of these sentences have errors? Let's see which parts need to be modified to make them accurate Korean sentences. The first example is “나는 한국어를 아주 좋아요.” Where is the error here? It is “한국어를”. How should this part change? You can change it to “한국어가”.

The second sentence is “작년에 살 거예요.” This part is not correct. How should this part change? We should change it to “작년에 살았어요.” The wrong part of the third sentence is “만나지 마라.” It can be corrected to “안 만난다.” or “못 만난다.”

The fourth sentence is “나는 서울로 안 이사했다.” Here, “안 이사했다.” is very awkward. We need to change it to “이사하지 않았다.” In the final sentence of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we need to use an honorific expression like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Korean has ‘particles’. Particles are attached to a noun, phrase, or sentence to add meaning. There are three kinds of particles. Case particles, delimiters, and conjunctive particles. Let's take a look at case particles. Case particles mark the syntactic relation of words in a sentence.

In the example, “가” after “수지” in “수지가” marks the nominal a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Case particles attached to a noun phrase mark the

nominal as subject, object, complement, predicate, modifier, adverbs, or independent words.

Delimiters add meaning to the nominal they are attached to. What does the example sentence, “수지만 시험에 합격했다.” mean? It means that several of her friends took the test, but only 수지 passed. Delimiters add special meaning.

Next, let's look at the conjunctive particle in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와 수박이다.” “와” connects the two words, 사과 and 수박. Same as “와”, we can also use “랑” and “하고” in “사과랑 수박”, “사과하고 수박”. “와”, “랑” and “하고” have the same meaning and are conjunctive particles.

We've just looked at case particles, delimiters and conjunctive particles. Now let's take a look at particles' characteristics. Unlike verbs and adjectives, particles do not conjugate. However, “이다” conjugates. Two or more particles can appear in a row.

In the example, “이곳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에서” and “는” appear in succession to form “에서는”. Particles can follow a noun phrase such as “사람” as in “성실한 사람이 아름답다.” They can also come after an adjective phrase as in “성실하지는 않다.” They can come after an adverb like “너무” in “너무도 성실하다.” Particles can also be used at the end of a sentence as in “어떻게 사느냐”.

Let's also take a look at time expressions in Korean, that is, tense. Tense is a grammatical expression for indicating time. When explaining tense, I use Time of Utterance and Event Time. The point of time when the speaker “utters” something is the point of utterance. Event Time can be seen as the point at which an event occurs, that is, an action or state occurs.

Looking at the concept of tense through Time of Utterance and Event Time, past tense is when the time at which an event occurred precedes the time at which it is said. So past tense means that the event happened before it is talked about in the present.

I am saying the sentence with the past tense “중국에서는 작년에 산 겁니다.” And in the present tense, the time at which the event takes place is the same as the time at which we are speaking. So I am speaking now, “지금 중

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And the future tense indicates that something will happen after the time of speaking. I am saying it now, but “중국에는 내년에 살 거예요.” This is called the future tense.

As you can see here, Korean tenses can be expressed by using tense markers after verbs and adjectives and by using adverbs that indicate time.

If we look at sentences in the past tense, there are adverbs such as “작년에” to express the past tense. We can also indicate the past tense with verbs such as “왔어요”, “었어요”.

The example sentences in the present tense use adverbs such as “지금” and “오늘”. And with “아요”, “어요”, the present tense can be indicated.

Time adverbs like “내년에” in “내년에 중국에서 살 거예요.”, “내일” and “을 거예요.” jointly indicate the future tense.

First, let's look at the present tense. The present tense is a time expression that expresses an event or situation that is currently taking place based on the time we are speaking. And the time of the event and the time of the utterance are the same.

In general, the present tense is denoted by final endings and modifiers. If we look at the final endings first in the examples, “읽어요.”, “읽습니다.”, “읽는 다.” endings like “아요”, “어요”, “해요”, “습니다”, “는다” denote the present tense.

There are modifiers in Korean which denote the present tense. An example of this is “읽는” in “책을 읽는 사람이 수미이다.” Adding the modifier form “는” to a verb indicates the present tense.

The past tense indicates an action or state that has already occurred at the time of speaking. In the past tense, Event Time precedes Time of Utterance. The past tense is expressed by using final endings, conjunctive past forms, or modifier past forms.

Here are examples of how to express the past tense: “친구를 만났다.”, “부산

에 살았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Endings like “았다” in “만났다”, “었다”, “했다”, and “이었다” indicate the past tense.

The second example is “살았었다.” Endings like “았었다”, “었었다”, and “했었다” also express the past tense. And “더” can be used to express the past tense. This is a way to express yourself when you recall an experience in the past. And when connecting two sentences, for example, “어제 친구를 만났다. 이야기하지 못했다.” “만났지만” is used instead of “만나지만” as an expression indicating the past tense.

The modifier past form also expresses the past tense. Adding “ㄴ” or “은” to verbs such as in “어제 만난 친구”, “어제 읽은 책”, which is the modifier past form, leads us to the final sentence on screen.

The future tense indicates that an event will occur after Time of Utterance. The future tense can be expressed with final endings and modifier forms. The final ending used for the future tense is “을 거예요” in the example, “내일 여행을 갈 거예요.”

And the example, “제가 그 일을 할게요.” expresses the will of the speaker and is also in the future tense. To express the future tense with the modifier form like “내일 여행을 갈 사람”, “주말에 입을 옷”, “ㄹ” or “을” needs to be added to the verbs.

There is ‘aspect’ related to tense based on Time of Utterance. Aspect is a grammatical element that expresses whether an action is in progress or completed based on Time of Utterance.

The progressive form of an action is usually expressed as follows. “고 있다” in “학교에 가고 있다.”, “아/어 가다” in “빨래가 다 말라간다.” and “으면서” in “빵을 먹으면서 가거라”.

Then, the perfective form, the completed action, is expressed in the following ways. “아/어 버리다” in “다 먹어버렸다.” and “아/어 있다.” in “가 있다.” The example, “빵을 먹고서 가거라.”, means “먹은 후에 가거라.” “고서” can express the completion of an action.

Negation is a grammatical function that negates all or part of the meaning

of linguistic content by using negative words. The example, “수영을 하다.” is an affirmative sentence. I’ll give you a minute. I want you to try to make as many negative sentences as possible.

Maybe you could make sentences like “수영을 안 한다.”, “수영을 못 한다.”, “수영을 하지 마라.”, “수영을 하지 말자.”. These are negative sentences. When we look at the negative sentences we can make, there are various expressions. There are many negative words such as “안”, “못”, “지 마라”, and “지 말자.” Let’s take a look at different types of negative sentences.

There are three types of negative sentences in Korean. These are “안”, “못”, and “말다” negative sentences. “안” negative sentences are formed by placing “안” before verbs or adjectives like “안 먹다”, “안 좋다”. This is called short negation. Short negation can be used with long negation like “먹지 않다” and “좋지 않다”. “안” negation usually denies the meaning of a sentence or the speaker’s will.

Short negation and long negation differ in length. “안 먹다” is shorter than “먹지 않다”. Negation is divided into short and long negation based on the length.

And “못” negation means “할 수 없다” because of some external circumstances or lack of ability. That’s why it can only be used with verbs. It has two types. The short form is “못 먹다” and the long form is “먹지 못하다”.

“말다” negation only has a long form. It is formed by placing “지 마라”, “지 말자” after verbs, it means to prohibit something.

Honorific is a way in which a speaker linguistically differentiates and expresses a listener’s status according to relative positions between them. In the first sentence, “아버지는 회사에 갔다.”, “아버지” is the subject.

To show respect towards the referent of the subject, 아버지, one needs to mark the verb like “회사에 가셨다.” not “회사에 갔다.”

You can also show respect towards the listener. To show respect towards the listener, one can say “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not “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다.”

The subject honorific is formed by adding an honorific marker to a verb. Shown earlier, we can place “께서” after a noun or attach “(으)시” to a stem verb.

You can also use special vocabulary, such as “편찮다” or “잡수다”. Secondly, there is also a way to show respect towards the person who listens to the speaker. The person listening to the previous conversation was the grandmother. So, we can use a grammatical expression such as “습니다” like this.

When verbs conjugate, the part that changes form is the ending. You can express honorifics with different final endings. ‘Addressee Honorification’ is especially developed in Korean. ‘Addressee Honorification’ is the way the speaker uses honorifics towards the listener.

The speaker says, “수지야, 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 The speaker can use “없어” because the listener is 수지. But the speaker cannot say “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 to 할머니. The speaker should say, “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요.”

‘Addressee Honorification’ is formed with different endings on predicates. ‘Addressee Honorification’ changes depending on whether the situation we are talking about is formal or informal.

A formal situation is a situation in which you have to speak politely and formally. This is to say in a formal setting, such as in a public place or at work. When the speaker asks the other person to sit down in a formal setting, ‘formal style’ like “앉으십시오” or “앉으시오” are used. When we use these expressions, they express a very objective and definite feeling. When we do not formally address the other person, we can say “앉게” or “앉아라”.

On the other hand, ‘informal style’ is for when we can be less polite and formal. We use it mostly when talking in everyday life or in personal situations. Usually, “아요/어요” are used in formal style. And “아/어” are used in informal style. And “아요/어요” convey a very subjective and soft feeling.

In Korean, you “elevate” others by using special vocabulary or “lower” yourself. In the example sentence “할머니, 차 드세요.”, there is a special

vocabulary that has an honorific expression. “드세요” is an honorific form of “마시다.” And “계시다” is an honorific form of “있다.”

Let's look at some more expressions of this kind of politeness. “드리다” is an honorific form of “주다” and “모시다” is an honorific form of “데리다.” In the example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what is “성함”? It is “이름”. In the example, “선생님, 생신이 언제입니까?”, “선생” has the honorific particle “님”. And “생신” is an honorific form of “생일”.

A speech act is a verbal act. It is also called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This is an action done through language. In the picture on the screen, two people are at the door, and one person is carrying a heavy load. They may ask the other person to open the door. When we make a request like this, the other party hears the request and does something.

When we make a request like this, we have to consider factors that influence the speech act. We consider the degree of intimacy between the participants in the conversation. Second, we can consider our status and degree of power. Then, depending on the type of request and the burden of the other party, the speech act may change.

Let's have a look at a request speech act, What would you say when you borrow money from a friend? I want you to think about it first. Let me show you four ways to say it.

As shown on the screen, “준수야,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2만 원만 빌려줄래?”, or “2만 원만 빌려주면 좋겠어.” In this way, asking for money between friend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Between close friends, you can directly say, “빌려줘.” But people who aren't close to each other will have a hard time talking as such.

Like this, the same request can have different expression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loseness. People who are not close to each other can ask a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request by carefully asking, ““빌려줄 수 있을까?” You can also ask about your friend's willingness to fulfill to request, by asking “빌려줄래?” You can also express a wish or hope, such as “네가 빌려주면 좋겠다.” I think it is possible to use expression No. 1 between really close

friends. No. 2, 3, and 4 are possible for those who are not close to each other.

As shown earlier, it is also possible to express only information about borrowing money. Like the sentences on the screen, “준수야,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2만 원만 빌려줘.” “미안한데 2만 원만 빌려줘.” or “미안한데 내가 현금이 없어서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In the previous sentences, there was only an expression asking for money, but no reason was given. However, as in sentence 5, you can say the reason and ask for the money. As in the sixth sentence, you can say “미안하다”, and ask for a loan to ease the burden on the listener.

Like the last sentence, you can reduce the burden and talk about the reason for borrowing money. When you compare “2만 원만 빌려줘.” and giving a reason followed by “미안하다” which lessens the listener’s burden, how would the listener feel?

When we make a request, we can only ask for money if we are friendly with the person we are talking to. However, when we are not close to the listener or want to speak more gently, we can convey our thoughts more politely and softly by giving a reason or using an expression that reduces the burden.

Next, let's look at the refusal speech act. Imagine a situation where you refuse when a friend asks to borrow money from you. If 유미 says, “준수야,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how would 유미 feel if 준수 says, “안 될 것 같아.” “나도 지금 현금이 없네.”, “미안해.” or “미안한데 나도 지금 현금이 없네.” 준수 can answer like this.

Different expressions can be used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eople. They are friends because they are the same age. Depending on their degree of intimacy, different expressions are used. The burden of the amount of 20,000 won may vary from person to person. However, if the amount is much larger than 20,000 won, I think it would be a burdensome request.

When you reject it directly and assertively by saying “안 될 것 같아.” I think 유미 will feel very hurt. Or we can give a reason for the refusal, such as “나도 지금 현금이 없다.” and then we apologize by saying “미안해.” We can also say a reason and give an apology like “미안한데 나도 지금 현금이 없다.”

The first is a very firm refusal. The second one gives a reason, the third one offers an apology, and the fourth one presents an apology and a reason.

A firm rejection like “안 될 것 같다.” between close friends, will make a friend feel very upset. We might be wondering if we just hear “미안해.” in response to a rejection. We might think “왜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지?” So the most appropriate way to refuse is to tell the reason or to offer an apology and reason together.

In this lecture, we’ve looked at important concepts of particles, tense, negation, honorific, and speech acts in Korean.

3차시 현대 중국어 개관/现代汉语的概述

Hello, everyone? In today's class we will explore grammatical features of Modern Chinese, Let's take a look at grammatical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Before we start, first, let's look at the definition of Modern Chinese. Since Chinese is the language of the Han Chinese, Modern Chinese is the language spoken by the modern Han Chinese. Modern Chinese has several dialects as well as a common ethnic language. Modern Chinese is a common language of the Han Chinese, with the Beijing pronunciation as the standard pronunciation and the Northern dialect as the basic dialect. It uses exemplary modern Vernacular Sinitic works as grammatical norms.

We can learn a lot from these three short verses. First, making the Beijing pronunciation the standard sound is a phonetic feature of Modern Standard Chinese, in other words, Modern Chinese pronunciation is based on the pronunciation in Beijing. One caveat, however, is that the Beijing pronunciation is not necessarily the Modern Standard Chinese pronunciation. This is because different dialect pronunciations, such as that of Beijing's local language, also exist in Beijing. Many pronunciations in these dialects were not included in standard pronunciations.

Second, Modern Chinese is based on the Northern dialect, which laid the lexical foundation of Modern Chinese. The dialects of southern and northern China differ greatly. In particular, the area where the northern dialect is used is wider and its influence is greater. As a result, the northern dialect naturally became the common language of the modern Han Chinese, that is, the basic dialect of the standard language.

Third, the adoption of exemplary modern Vernacular Sinitic works as grammatical norms established the grammatical foundation of modern Chinese.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Chinese language has undergone great changes. Ancient Chinese, or Classical Chinese,

is hardly understood by Chinese in modern society. Therefore, when taking the standard language as the common language of the modern Han Chinese, there is no choice but to adopt the Vernacular Sinitic works as the grammatical norm.

Then, how did the modern standard language, the common language of the people, form in the long history of China?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the common language of modern Han Chinese. As the common language of ethnic communities, it is not a product of modern society, but was already formed in ancient China.

The Han Chinese had an ancient common language in the Pre-Qin period, which was called 'Yayan' at that time. From the time of the Han Dynasty, the common language of the Han Chinese was called 'Tongyu', and in the Ming Dynasty, it was called 'Guānhuà'. In the Republic of China, in the period after the Xinhai Revolution, it was called 'Guoyu',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it was called 'Pǔtōnghuà'.

Through this process of change, the common language of the Han Chinese had existed throughout Chinese history. However, it can be seen that its name is different for each period. In modern society, the common language of the Han people in China is 'Pǔtōnghuà'.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mmon language of the Han Chinese was explained earlier, but its essence has not changed. In other words, Yayan, Tongyu, Guānhuà, and Guoyu are all common languages of the Han Chinese community. So Pǔtōnghuà as we speak now is the language spoken by the Han Chinese community.

However, besides the common language, there are many dialects of Chinese, which are called 'Fangyan'. A dialect of Chinese is a language that is used only in a certain area and is not a language that exists independently of ethnic languages, but is used locally. Chinese dialects have also undergone a long process of change. At present, Chinese dialects can be basically divided into seven dialects. These are Northern, Wu, Gan, Xiang, Hakka, Min and Cantonese dialects.

The picture we're looking at here is a distribution map of the seven dialects of modern Chinese. This distribution map shows the major regions of distribution for each dialect. A dialect is only spoken in a certain area, not another language independent of the national language, but a language used in a local area. Here we will not be looking at the dialects, but primarily the common language of the modern Han Chinese, Pǔtōnghuà. For convenience in explanation, the common language of the modern Han Chinese, Pǔtōnghuà, is referred to as Chinese.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Pǔtōnghuà, as a common language of the Han Chinese? We will take a rough look at the three aspects of modern Chinese: phonetics, vocabulary, and grammar. First of all, in terms of phonetics, modern Chinese has no consonant clusters, many vowels, and tones. Second, from a lexical point of view, Chinese morphemes are monosyllabic in their basic form, and root compound methods are often used in the composition of new words. There are also many double syllables. Lastly, from a grammatical point of view, word order and function words in modern Chinese are the main grammatical means in Chinese. The structural principles for words, phrases and sentences are basically the same. Parts of speech and sentence components do not correspond to each other, and quantifiers are very rich.

In addition to these features, modern Chinese has many distinctive features. Therefore, I will analyze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in three aspects: phonetics, vocabulary, and grammar. At the same time, to help Chinese people learn Korean and Koreans learn Chinese, and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to those engaged in Korean and Chinese education, after analyzing the grammatical features of Chinese, I will compare them with the grammatical features of Korean. I want learners to discove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so that they can deepen their understanding and mastery of Chinese and Korean.

4차시 주차별 학습 내용/每周教学内容安排

After looking at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let's look at the contents of each week's lecture. In Week 2, I will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pronunciation. A phonetic sound has a certain meaning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that is emitted through the human speech organ. As ideograms, Chinese characters represent meaning with symbolic signs of a certain system.

Then, how has Chinese pronunciation been written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Chinese people learn Chinese Pīnyīn from an early age. When foreigners learn Chinese, they must learn it as well. So, what is Chinese Pīnyīn? What does it refer to? We will briefly introduce it.

How many parts do Chinese speech sounds consist of? In Chinese, what does 'Undu', 'Unbok', and 'Unmi' refer to, and how are they distinguished? Also, in the study of traditional Chinese phonetics, voiceless and voiced are concepts that are often mentioned. So what are voiceless and voiced consonants? In addition, we will look at how Shēngmǔ are distinguished, how z and zh, c and ch, and s and sh are different.

In addition, based on a rough understanding of Chinese phonetics through learning Chinese phonetic features, Korean and Chinese speech sounds will be contrasted and analyzed. Through contrastive analysis, we will understand why Chinese people get confused with 'ㄷ, ㅌ, and ㅌ' when they learn Korean, and why they always curl their tongue when they speak Korean. What I have said so far is an overview of what we will learn in week 2.

After learning the sounds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e third week, we will look at the syllable structure and tones of the Chinese language. We will first see what syllabic structure is and how syllabic phrases are constructed. One of the most difficult parts for foreigners to learn Chinese is the tone. So, we will find out what tones are, why there are tones in Chinese, what tones mean, what kinds of tones are in Chinese, what the pitch of each tone is,

and how to distinguish tones.

Also,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nges a bit in actual conversation, so we will look at what phonological changes there are in Chinese. We will also look at what Chinese people commonly say, 'Qīngshēng' and 'Wánr'. In actual communication situations, a change in tone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is called 'Tone Sandhi'. What types of Tone Sandhi are there in modern Chinese? How is the syllable structure differe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phonological changes in Chinese are mainly tonal changes, but what are the phonological changes in Korean? In the third week of study, all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ill be resolved.

Lectures for weeks 2 and 3 will be mainly about phonetic sounds. From Week 4, you will look at sentences. The main study in week 4 is Chinese sentence structure and word order. There are many languages in the world, and many of them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in common. If you were to classify these languages, what type would they fall into? Which of these language types does Chinese belong to?

Also, the order of words in a sentence depends on the language. For example, Chinese say '我吃饭', but Koreans say '나는(我) 밥을(饭) 먹는다(吃)'. So, what is the basic word order in Chinese? We are well aware that the Chinese word order cannot be arbitrarily changed. For example, '我吃饭' cannot be changed to '我饭吃'. Also, '我爱你' and '你爱我' have different meanings.

So why can't we change the word order in Chinese? What factors affect Chinese word order? A sentence can be broken down into several components. What are the basic sentence components in Chinese? In Chinese, if a sentence is too long,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So, we put some space or notation marks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which are Chinese punctuation marks. How can we distinguish Chinese punctuation marks?

After examining Chinese word order and sentence components, we will look at how the Chinese and Korean basic word order differs, and whether the Chinese and Korean complements are the same from the perspective of a

Korean-Chinese contrast analysis. And we will compare and analyze Chinese and Korean punctuation marks to find out how they differ. In the 4th week of learning, you will have a relatively deep understanding of the word order and the components of sentences in Chinese and Korean.

In the 5th week, parts of speech in Chinese will be analyzed, and mainly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verbs and adjectives will be examined. Every language has its own set of classifications for parts of speech. If so, what is the standard for classifying parts of speech in Chinese, and what classifications can Chinese be divided into? Verbs are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parts of speech. What grammatical characteristics do Chinese verbs have, and how can they be classified?

Also, a very important type of verb in Chinese is auxiliary verbs. What are they in Chinese and what grammatical characteristics do they have? And adjectives are also very important in parts of speech. In this part, we will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djectives and 'Qubieci'. Through this study, we can have a relatively in-depth understanding of Chinese verbs and adjectives.

After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verbs and adjectives, we will compare and analyze Chinese and Korean verbs and adjectives to see how they differ. Verbs and adjectives in Chinese can be subjects in sentences. Then, can Korean verbs and adjectives also be used as subjects in sentences?

Lastly, by observing the contrast between Chinese and Korean, I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what part of speech the Chinese auxiliary verb corresponds to in Korean. Through the 5th week of study, we will not only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main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verbs and adjectives, but als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Korean verbs and adjectives.

In Week 6, we will mainly be looking at conjunctions and prepositions in Chinese. Through the above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we can see that Chinese prepositions belong to a kind of function word, have no practical meaning, and only serve a certain grammatical function. Then, what

grammatical function do prepositions in Chinese mainly serve? What are their grammatical characteristics? Most Chinese verbs and adjectives can be reduplicated, but how about Chinese preposition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在’ in “小明不在家” and “书在桌子上放着”?

And what do Chinese conjunctions refer to? How do Chinese conjunctions and prepositions differ? After grasping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prepositions and analyzing them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trast between Chinese and Korean, we will look at what parts of speech Chinese prepositions correspond to in Korean, and how Chinese prepositions and Korean particles are syntactically different.

Also, can Chinese prepositions be used in combination? Can Korean postpositions be used in combination? Do Chinese prepositions correspond to Korean adverbial particles? Through the 6th week of study, you will be able to deeply understand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prepositions, which parts of speech they correspond to in Korean, and how they correspond.

In the 7th week, we will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tense and aspect, and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Korean tense and aspect. First, we'll find out what tense refers to and whether there is tense in Chinese. Secondly, aspect particles are a very important concept in Chinese, so what do they refer to in Chinese? What aspect particles are there in Chinese? What are the grammatical features of each aspect particle? ‘了’ is an aspect particle that is frequently used in Chinese. So, what are its grammatical features? Similarly, what are the grammatical features of the aspect particles ‘着’ and ‘过’? What are their grammatical features?

After understanding the grammatical features of Chinese aspect particles, we will analyze them by observing the contrast between Chinese and Korean. ‘了’ in Chinese is usually considered as a past tense expression. Then, what are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between ‘了’ in Chinese and the past tense in Korean? How is the future tense in Chinese expressed? How does ‘过’, which represents past experience in Chinese, correspond to Korean? Through the study of Chinese tense and aspect in the 7th week, you will not only be able

to deeply understand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aspect particles, but also will be able to clearly understand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Korean tense and aspect.

The main topic of study for the 8th week of the 8th week is negative expressions in Chinese. Negation is a very important category in everyday language life. So, what are negative expressions in Chinese? What are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negative adverb '不'? What are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negative adverb '没'? How can we differentiate between '不' and '没' in Chinese?

After examining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negative expressions, we will analyze Chinese and Korean negative expressions by contrasting them. And we will look at how Chinese and Korean negative expressions differ morphologically and syntactically.

We will also see how to translate the 'potential complement structure' of Chinese into Korean. What are differences between the negative element '没' in Chinese and '못' in Korean? In the 8th week of study,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Chinese negative expressions more deeply, and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negative expressions.

In the 9th week, we will learn about honorifics and address terms in Chinese. What does honorific mean? What types of honorifics are there in modern Chinese? What do honorific words refer to? What are the sentence patterns that express respect in Chinese? Korean is a language with relatively developed honorifics, and the expression of honorifics is very systematic.

So, what do Chinese and Korean honorific expressions have in common? W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honorific expressions? What types of honorific expressions are there in Korean? What are the contrasting features of address terms in Chinese and Korean? In the 9th week of study, we will be able to deeply understand th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Korean honorifics.

In Week 10, we will be looking at refusal and request speech acts in

Chinese. 'Refusal' and 'request' are two very important speech acts in daily life. So, what is a request speech act? What is its basic structure in Chinese? What are the types of initial speech acts in Chinese? What are the types of auxiliary speech acts in Chinese? What are the strategies of Chinese central speech acts? What types of refusal speech act are there?

What's a 'true refusal' and a 'false refusal'? How do request speech acts differ linguistically between Chinese and Korean? What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Chinese and Korean in initial speech acts? What do Chinese and Korean have in common in terms of auxiliary speech acts? Through the 10th week of study, you will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Chinese refusal and request speech acts, and at the same time, you wi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refusal and request speech acts.

讲义

1차시 한국어 개관: 음운 체계, 문장 구조, 품사

大家好, 本节课以韩国语概观来看一下韩语的音韵体系、句子结构以及词类中重要的概念或内容.

韩语是韩国人使用的语言. 但是生活在中国, 日本, 俄罗斯等世界各国的韩国在外同胞也在使用韩语. 而且很多喜爱韩国的外国人也在使用韩语. 特别是在中国, 韩语学习者非常多.

屏幕上显示的是我想给大家看的新闻题目的一部分. 新闻的内容是由于韩剧人气的高涨, 中国掀起了韩语热潮, 也就是说, 引起了很高的关注. 然后看下面的话, 内容是有很多韩国企业进入中国为了韩语的扩散, 韩国企业也活跃在中国.

像这样最近随着K-POP和韩剧等韩流文化人气的高涨学习韩语的中国人也多了起来. 以就业或留学等为目的学习韩语的中国人也多了起来. 我们一起学习韩语的时候大家对韩语有了更深的理解. 希望能够积累像韩国人一样能够准确、流利地使用韩语的韩语实力.

韩语包括说话声(말소리)以及文字(글자). 各位, 现在画面中展示的建筑物是什么呢? 韩国国宝1号首尔崇礼门. 周围有文字对吧. 大家要读一下吗?

对, 是‘让我们一起比较一下韩语和中文’. 现在这样读或者说话的声音叫做‘说话声(말소리)’. 把说话的声音写成文字, 在韩语中叫做‘韩文(한글)’.

韩文是1443年朝鲜国王世宗大王创造的. 韩文有元音和辅音. 世宗大王在创造元音时, 分别模仿天、地、人创造了基本的字母. ‘ㅇ’是模仿圆圆的天空的样子创造的. 然后‘ㅣ’是模仿了人站着的样子. 最后, ‘ㅡ’是模仿平坦的土地的样子创造的. 像这样把‘ㅇ’, ‘ㅣ’, ‘ㅡ’的基本字母合在一起, 创造了其他的元音. 例如, 如果将‘ㅇ’写在‘ㅡ’上的话就是‘ㅕ’, 将‘ㅇ’写在‘ㅣ’的右侧的话就会是‘ㅗ’.

像这样, 创造了‘ㅕ’和‘ㅗ’, 那么在‘ㅕ’和‘ㅗ’上再加上‘ㅇ’的话就会变成‘ㅛ’, ‘ㅜ’. 韩语元音是模仿天、人、地而创作的基本字母‘ㅇ’, ‘ㅣ’, ‘ㅡ’结合在一起, 非常系统地创作出来的.

下面我们来看一下辅音的创造原理. 世宗大王模仿人体发音器官的形状和动作创造了辅音的基本字母. 即, 按照舌头、嘴唇、牙齿、喉咙的形状创造了‘ㄱ, ㄴ, ㄷ, ㄹ, ㅁ, ㅇ’. 以基本字母加笔画的方式创造了‘ㄱ, ㄴ, ㄷ, ㄹ, ㅁ, ㅇ’以外的辅音字. 例如, 在‘ㄱ’上加上笔划创造出更加强

两个音韵会减少为一个音韵. 所以我们可以把 ‘보아라’ 读成 ‘바라’ 这叫 ‘축약(缩写)’. 脱落的意思是消失, 所以两个音韵中的一个会消失. 在使用 ‘값’ 这个词的时候, 虽然我们同时使用收音 ‘ㅂ’ 和 ‘ㅅ’ 但发出声音的时候只用 ‘ㅂ’. 添加指的是生成了其他的东西. 所以像这样合成某个单词和单词语素时, 会生成新的音韵. ‘맨’ 和 ‘입’ 这两种语素相遇组成 ‘맨입’ 的时候会添加 ‘ㄴ’ 的声音. 所以不能发成 ‘맨입’, 而应该发 ‘맨닙’.

在韩语文章中, 每个部分都有一定的语法作用. 首先, 句子中 ‘누가’, ‘무엇’ 是主语. 然后主语像 ‘어찌한다’, ‘어떠하다’, ‘누구이다’, ‘무엇이다’ 一样有表示主语的动作或状态、性质、属性等的谓语.

大家看一下在屏幕上的例句中, 主语是什么? 是的, 是 ‘왕군 씨’. 谓语有哪些呢? 有 ‘공부한다’, ‘아니다’. 文章中必须要有主语和谓语. 还有第一句中,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 里有相当于 ‘무엇을’, ‘누구를’ 的话, 我们称之为 ‘宾语’. 比起 ‘왕군 씨가 공부한다.(王军在学习)’, ‘한국어를 공부한다.’ 可以更准确地传达意思. 然后在第二句中只说 ‘왕군 씨는 아니다.’ 的话人们无法理解这句话. 句子中必须有一个主语和一个谓语. 像这样根据谓语的种类不同, 有必须使用宾语的谓语. 除了宾语之外, 还有在补充说明主语的成分时必不可少的谓语. 像这样补充说明主语的成分叫做 ‘补语’. 在韩语中需要这种补充语的谓语有 ‘되다’, ‘아니다’.

在第二句中, 如果没有 ‘한국 사람(韩国人)’ 的补语, 句子就不成立. 所以主语、谓语、宾语、补语是文章中必不可少的, 因此被称为 ‘主要成分’. 第三个句子中, 就像 ‘왕군 씨가 재미있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王军努力地学习有趣的韩语)’ 一样可以使用修饰宾语 ‘재미있는(有趣)’ 的定语或修饰谓语的状语 ‘열심히(努力地)’. 因为即使没有定语和状语, 句子也能成立不是句子中必须使用的成分, 所以被称为 ‘附属成分’.

来看一下最后的例句吧? 句子前面有 ‘우와’ 这样的表达. 这部分是与句子的任何成分在语法上都没有直接关系的一种独立的成分. 一般不是感叹词就是称呼人的情况. 这样独立语与句子的主要成分和附属成分没有直接关系因为是从句子中分离出来的成分, 所以被称为 ‘独立成分’.

看了前面的句子成分. 在用韩语造句时, 应该按照什么样的顺序呢? 语序可以说是句子中出现的句子成分的顺序. 下面我们来看一下韩语的几个语序.

韩语句子至少由一个主语和一个谓语组成. 但是在韩语中, 主语应该出现在谓语前面. 来看第一句, 主语 ‘꽃이(花)’ 在前, 谓语 ‘핀다(盛开)’ 在后. 在第二句中, 主语 ‘그(他)’ 出现在前面, 谓语 ‘산다(活)’ 出现在后面. 宾语出现在主语和谓语之间. 在下面的句子中补语在哪个位置上呢? 补语是用于主语和谓语之间.

我们再来看几个语序. 在韩语中修饰语是出现在被修饰语的前面还是后面? 例句中有 ‘사랑하는 사람(爱的人)’这一表现. 我们把 ‘사랑하는 사람(爱的人)’, ‘좋아하는 사람(喜欢的人)’等修饰语写在사람(人)前面. 在第五个例句中, 不是‘철수 영희 길 만났다(哲洙 英姬 路遇到了)’. 像‘철수가 영희를 길에서 만났다(哲洙在路上遇到了英姬).’一样, 在韩语中要在单词之间加助词才可以造出正确的句子.

最后的例句是 ‘나는 비빔밥을 먹어 보았다(我吃过拌饭).’ 像‘비빔밥을 먹어 보았다.’ ‘만들어 보았다.’ ‘사 보았다.’一样可以使用 ‘아/어 보았다’这样的表达方式. 在语法谓词中将其称为 ‘主动词’和 ‘助动词’. 在韩语中, 主动词用于助动词前面.

接下来将韩语的句子这样分为五类. 大家先看看这里出现的例句, 我给大家一点时间. 句子中包含的内容 ‘수미(秀美)’, ‘책(书)’, ‘읽다(读).’ 但是正如第一句中 ‘수미가 책을 읽습니다(秀美在读书).’一样. 陈述说话人的想法或事实的句子称为‘平述文’. 然后, 可以提问, 像 ‘수미가 책을 읽습니까?(秀美读书吗?)’这样的句子叫做‘疑问句’. 像第三句 ‘수미 씨, 책을 읽으십시오(秀美, 请读书).’一样可以要求秀美读书. 要求对方采取某种行动的文章称为 ‘命令句’. 像说 ‘수미 씨, 우리 같이 합시다(秀美, 我们一起去吧).’一样, 说话者要求对方和自己一起去做某种行动的句子叫做 ‘祈使句’. 最后一句呢? 像 ‘수미 씨가 정말 책을 많이 읽는군요(秀美真的读了很多书啊).’一样对某事实感到惊讶或感叹的句子叫做 ‘感叹句’.

各位, 该如何区分句子的种类呢? 同样的内容我们如何根据情况的不同去使用呢? 是的, 就像 ‘습니다.’, ‘습니까?’, ‘읍시다.’一样在动词、形容词、助词等谓语的后面使用各种表达方式. 而且还可以使用标点符号.

来看一下疑问句或感叹句后面使用了什么样的符号. 是的, 使用了问号和感叹号. 同样的意思也可以用多种句子表达

让我们再来看一下句子的种类. 大家先读一下1号到5号的例句. 其中有些句子中包含两个以上的谓语. 希望大家能找出包含两个以上的谓语的句子. 给大家一点时间.

各位, 出现两个以上的谓语的句子是几号? 是的, 是3, 4, 5号句子. 第1句和第2句各有一个主语和一个谓语, 但第3, 4, 5句并非如此. 在一个句子中出现一个主语和谓语的情况被称为 ‘单句’. 两个以上的短句合在一起, 扩大成更大的句子的情况叫做 ‘复合句’. 1号和2号是单句, 3, 4, 5号是复合句. 复合句是句子的扩大, 像3, 4号句子一样, 句子也可以这样并排连接在一起. 像第五号句子一样 ‘건강은 중요하다(健康很重要).’的句子可以加到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每个人都认为).’句子里.

在前面我们看了韩语句子. 为了丰富和准确地造句, 了解语法和词汇, 即了解单词非常重

要. 如果我们进一步了解单词的特质的话, 就能更加准确、多样地使用韩语了.

语法特性相同的像名词, 动词等单词放在一起被称为‘词类’. 词类可以大致根据形态, 功能和意义进行分类. 有像名词一样在句子中不会发生变化的单词, 有像动词一样会发生变化的单词. 不发生变化的是不变语, 发生变化的是可变语. 韩语句子里形态发生变化的单词是谓词, 谓词属于可变语.

谓词中包括动词和形容词. 助词中 ‘이다’ 的形态发生变化, 因此也属于可变语. 根据单词在句子中担当的功能主要有可以用作主语或宾语的体词.

接下来是修饰其他成分的修饰语, 以及表示各种成分关系的关系语. 有独立使用的独立语, 以及用作谓语的谓词.

最后根据每个单词的意思可分为名词, 代名词, 数词, 冠词, 副词, 助词, 感叹词, 动词, 形容词.

在我们的讲座中, 我们将主要看一下体词和谓词以及关系词. 体词在句子中起到主语或宾语的作用.

体词不仅包括名词还包括代名词和数词. 名词是表示人或事物名称的词语, 如 ‘아버지(父亲)’, ‘어머니(母)’, ‘빵(面包)’等.

代名词是指代人或事物的名字的单词有 ‘나(我)’, ‘너(你)’, ‘우리(我们)’, ‘이것(这个)’, ‘저것(那个)’.

数词是表示数量或顺序的单词. 有 ‘하나(一)’, ‘둘(二)’, ‘셋째(三)’等单词.

冠词是 ‘새 차(新车)’, ‘그 차(那辆车)’中的 ‘새(新)’, ‘그(那)’一样, 放在体词前面修饰体词.

副词是像 ‘매우(非常)’, ‘정말(真的)’一样的单词修饰谓语或句子的成分.

在 ‘밥을 먹는다(吃饭)’, ‘민호는 멋지다(旻浩帅)’的句子中, 使用了动词和形容词. 动词和形容词具有叙述句子主语的功能, 叫做 ‘谓词’. 我们更具体地来看一下动词和形容词吧.

动词是指像 ‘먹다(吃)’, ‘걷다(走)’, ‘말하다(说)’, ‘듣다(听)’一样表示人或事物的动态的单词. 形容词是指像 ‘멋지다(帅)’, ‘좋다(好)’, ‘크다(大)’, ‘작다(小)’一样表示人或事物的状态或性质的单词. 在谓词中活用非常重要, 活用是句子中谓词形态发生的变化. 来看下面的单词, ‘먹다’, ‘먹고’, ‘먹으니’, ‘먹었다’, ‘먹겠다’在活用时有不变的部分, 活用时没有发生变化的部分是 ‘먹’. 这个部分叫做 ‘词干’, 变化的部分 ‘다’, ‘고’, ‘으니’, ‘었다’, ‘겠다’. 这一部分叫做 ‘词尾’. 表格里有 ‘먹다’.

在谓词的活用的形态中, 像这样在词干上加 ‘다’ 就是活用时最基本的, 叫做 ‘基本型’. 词典中出现了 ‘먹다(吃)’, ‘읽다(读)’, ‘듣다(听)’, 这类词叫做 ‘词目’.

在韩语中的活用对于韩语不是母语的学习者来说, 是学习韩语时最难的部分. 因此, 我们在语法课上学习了很多动词或形容词在发生变化时使用的词尾. 句子中的动词和形容词的形态会发生变化. 活用时发生的变化可以用规律说明的话叫做规则活用, 发生的变化难以解释的叫做不规则活用.

首先来看规则活用, ‘입습니다’, ‘입었습니다’ 中 ‘입’ 没有发生变化. 规则活用中活用时即使维持或改变词干或词尾的形态也还是可以用规律说明那个现象. 不规则活用是像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一样 ‘듣다’ 在遇到 ‘습니다’ 的时候有收音 ‘ㄷ’, 但遇到 ‘었습니다’ 的话, 会变成收音 ‘ㄹ’. 这样后面附着的表达方式, 即根据词尾的不同, 词干的样子也会有所不同. 这被称为谓词的 ‘不规则活用’.

不规则活用中有词干发生变化的情况, 也有词尾发生变化的情况. 有时词干和词尾都会发生变化. 先来看一下例句吧.

‘한국어를 공부한다(学习韩语).’, ‘한국어 공부는 재미있다(学习韩语很有意思).’ 第一句中 ‘공부한다(学习)’ 的词类是什么呢? 是的, 是动词. ‘재미있다(有意思)’ 呢? 是形容词. 在韩语中动词和形容词共同在句子中用作谓语根据用途的不同, 形态也会发生变化.

让我们来看一下动词和形容词之间的区别是什么. 从意义上说, 动词表示动作. 形容词表示性质或状态. 像 ‘집으로 가거라(回家吧).’ 一样, 可以使用动词表达命令, 相反如 ‘즐거워라(快乐吧).’ 不能使用形容词表达命令. 像 ‘우리는 집으로 가자(我们回家吧)’ 动词虽然可以用于祈使的表达方式 ‘즐겁자(快乐吧)’, ‘기쁘자(开心吧)’, ‘예쁘자(漂亮吧)’ 等形容词不可以用于祈使表现中. 现在时也一样, 动词可以用于现在时的表现, 如 ‘밥을 먹는다(吃饭).’ 形容词不能用于现在时的表现方式中, 如 ‘기분이 나쁘다(心情不好).’

来看现在进行时, 动词可以像 ‘가고 있다(正走着).’ 一样用于现在时的表现中但像 ‘예쁘고 있다(正在很漂亮).’ 一样, 不能使用形容词. 像这样有动词可以与命令, 祈使, 现在时, 现在进行时一起使用, 相反形容词却不可以与之使用的区别.

在这次讲义中我们了解了韩语的音韵体系, 句子结构以及词类中的重要概念和内容.

2차시 한국어 개관: 조사, 시제, 부정, 높임, 화행

大家好. 这节课是通过韩语概观来看一下韩语的助词, 时态, 否定, 敬语, 话行中重要的概念或内容.

屏幕上显示有5个例句. 来看一下5个例句,

‘나는 한국어를 아주 좋아요.’

‘저는 작년에 중국에서 살 거예요.’

‘나는 준수 씨를 만나지 마라.’

‘나는 부산으로 안 이사했다.’

‘수지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这里应该修改哪个部分, 请大家先找找错误. 给大家一点时间来找找错误吧. 各位, 哪个部分是错的呢? 让我们来看一下修改哪个部分才能成为正确的韩语文章吧.

第一句‘나는 한국어를 아주 좋아요.’ 这个句子错的地方在哪? 是‘한국어를’这个部分应该换成什么呢? 换成‘한국어가’就可以了. 然后在第二句中‘작년에 살 거예요.’这部分不合适. 这个部分该怎么改呢? 改成‘작년에 살았어요.’第三个错误是‘만나지 마라.’这部分可以改为‘안 만나다.’, ‘못 만나다’. 第四句‘나는 서울로 안 이사했다.’中的‘안 이사했다.’部分非常不通顺. 可以改为‘이사하지 않았다.’ 在最后一句中, 不是‘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而是应该用敬语, 修改为‘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韩语中有‘助词’. 助词附在名词或相当于名词角色的话或句子后面, 赋予其特别的含义. 助词的种类有三种. 有格助词, 辅助词和连接助词. 先看一下格助词.

格助词特别说明带有助词的话在文章中起着什么样的作用. 例句‘수지가’中 ‘수지’后面加上‘가’使其在句子中成为主语. 格助词附在名词等体词后面, 使句中相应的部分成为主语, 宾语, 补语, 谓语, 定语, 副词, 独立语.

辅助词是给前面的话增加其他意思的助词. 例句中‘수지만 시험에 합격했다.’是什么意思呢? 也就是说, 朋友中有好几个人考了试, 其中只有秀智一个人合格了. 像这样辅助词可以添加特

别的含义.

接下来看一下连接助词, 例句‘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와 수박이다.’中‘와’具有连接사과, 수박两个单词的作用. 和‘와’一样‘사과랑 수박’, ‘사과하고 수박’, 像这样‘와’和 ‘하고’的意义相同, 可以作为连接助词使用.

前面我们看了助词的种类, 格助词, 辅助词, 连接助词. 我们来看一下助词的特征. 助词与动词, 形容词不同, 不能进行活用. 但是‘이다’可以活用, 然后助词和助词可以重叠使用. 例句里说‘이곳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的时候‘에서는’中 ‘에서’是和 ‘는’连用的. 并且像‘성실한 사람이 아름답다.’一样, 助词也可以写在体词 ‘사람’后面, 像 ‘성실하지는 않다.’一样也可以写在谓词后面. 像‘너무도 성실하다.’一样也可以写在副词‘너무’的后面. 也可以写在‘어떻게 사느냐’的句子后面.

下面我们来看一下韩语的时间表现, 即时态. 时态是表示时间的语法表达. 在说明时态时, 我会用发话时间和事件时间进行说明. 发话时间说的就是‘发话’, 所以可以看作是说话的人说话的时点. 事件时间是会发生什么事, 即可以看作是动作或状态发生的时点.

通过前面所说的发话时间和事件时间来了解时态的概念. 首先, 过去时是指某件事的发生时间比说话的时间早. 所以在现在说话之前已经发生了事件. 从例句来看即使我现在在说话, ‘중국에서는 작년에 산 겁니다.’现在发生某件事的时间是与现在说话的时间一致的时态. 所以我现在在说‘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将来时是指说话的时间之后会发生的事情. 所以我现在在说话, 但应该是‘중국에는 내년에 살 거예요.’这个叫做‘将来时’.

仔细看这里就能知道韩语的时态就像前面所说的一样, 在动词, 形容词后使用时态表达用表示时间的副词可以表现得更清楚. 从过去时的句子来看, 有副词 ‘작년에’, 很好地表现了过去时. 然后通过‘왔어요’, ‘있어요’表达过去时. 从现在时的例句来看, 可以将副词 ‘지금’, ‘오늘’用于句子中. 然后也可以通过 ‘아요’, ‘어요’来表达时态. 还有‘내년에 중국에서 살 거예요.’可以使用像‘내년에’, ‘내일’这样的时间副词和‘을 거예요.’这样的表达来表示将来.

首先来看一下现在时. 现在时是以说话的时点为准. 是表示现在发生的事件或情况的时间表现. 所以事件时间和发话时间是一样的. 一般来说, 现在时表现为终结型, 终结表达和冠词型表达.

所以我们先来看一下终结表达, 就像例文中看到的那样, 如‘읽어요’, ‘읽습니다.’, ‘읽는다.’一样. ‘아요’, ‘어요’, ‘해요’, ‘습니다’, ‘는다’表示现在. 然后也可以用冠词形来表达时态. 比

如, '책을 읽는 사람이 수미이다.'中'읽는'即在动词后面加上 '는'以这样的冠词形来表达现在时. 过去时是以说话的时点为准, 表示已经发生的动作或状态的时间表现. 所以比起说话时的发话时间事件时间发生的更早. 表示过去时态的方法有使用终结形的过去时, 连接形的过去时或者冠词词形的过去时的方法. 例句中有'친구를 만났다.', '부산에 살았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在这个例句中, 像'만났다.'一样, 使用了'았다', '었다', '했다', '이었다'的表现方式来表示过去时.

第二个例句中的 '살았었다.' '있었다', '있었다', '했었다'同样是表示过去的时态. 并且在表示过去的时候也可以使用 '더'. 这是回忆过去经历的事情时使用的表达的方法.

然后在连接两个句子时, 比如说 '어제 친구를 만났다. 이야기하지 못했다.'中作为表示过去时态的表现, 不能使用 '만나지만'而应该用'만났지만'来表示. 另外, 过去时也可能出现在下面的这个冠词词形中. 像'어제 만난 친구', '어제 읽은 책'一样, 在动词后面加上'ㄴ'或'은'. 像屏幕上出现的最后一句话一样写成冠词词形过去时. 发话时, 即表示说话时间之后发生的事件的时态称为 '将来时'. 将来时也可以用终结型, 冠词形来表示.

先看一下终结形, 像'내일 여행을 갈 거예요.'一样, 可以使用'을 거예요'来表示. 还有'제가 그 일을 할게요.'是表达主语的意志, 所以时态用将来时. 通过冠词词形来表示将来时时, 像'내일 여행을 갈 사람', '주말에 입을 옷'一样在动词后面加上 'ㄹ'或 '을'可以表示将来.

韩语的发话时间, 即以说话时间为准, 有与时态相关的 '时制'. 时制是以说话的时间为基准, 表现某种动作正在进行或已经完成的语法要素. 时制中的进行时态表示的是动作的进行. '학교에 가고 있다.'中的'고 있다.', '빨래가 다 말라간다.'中的 '아/어 가다', '빵을 먹으면서 가거라'中的'으면서'表示的是动作的进行.

然后是完成时, 表示动作的结束和完结'다 먹어버렸다.'中的'아/어 버리다', 如'가 있다.'中的 '아/어 있다'. '빵을 먹고서 가거라.'与'먹은 후에 가거라.'一样表达吃完后的意思. 通过'고서'表达动作的完结.

否定指的是用表示否定的话来否定语言内容的全部或部分含义的语法. 各位. 下面有肯定句 '수영을 하다.' 我给大家一点时间, 请大家以这个肯定句尽可能地造出多样的否定句.

也许可能会这样造句. 造出像'수영을 안 한다.', '수영을 못 한다.' '수영을 하지 마라.', '수영을 하지 말자.'这样的否定句. 从我们造出的否定句来看, 有许多种表达方式. 像'안', '못', '지 마라', '지 말자'等表示否定的表现.

让我们来看一下多样的否定句类型. 韩语否定句中大致可以分为'안'否定句, '못'否定句, '말다'否定句. '안'否定句, 如'안 먹다', '안 좋다'一样, 在动词或形容词前加'안'. 这叫做 '简短

否定’.而长否定可以写作‘먹지 않다’, ‘좋지 않다’. ‘안’否定通常只是单纯地否定内容或否定说话人的意志. 简短否定和长否定是指长度的差异. 只是将‘안 먹다’, ‘먹지 않다’进行比较的话, ‘안 먹다’更加简短. 比较否定句的长度, 在语法上也分简短否定句和长否定句.

‘못’否定句是指因某种外部情况或能力不足而‘할 수 없다(做不到)’. 因此只能用于动词上. 可以写作简短否定句‘못 먹다’, 也可以写作长否定句‘먹지 못하다’. 像‘말다’这样的否定, 不能写成简短否定句但可以写成长否定句. 所以动词后面可以加‘지 마라’, ‘지 말자’用来表示禁止.

敬语是说话的人对某个对象或以对方为对象或是以对方身份的高低进行语言上区分的表达方式. 第一句话‘아버지는 회사에 갔다.’中‘아버지’是主语. 所以不是在主语父亲上用敬语写成‘아버지께서는 회사에 갔다.’而是像‘회사에 가셨다.’一样将敬语用于父亲的行为上. 而且还可以对谈话的对方, 听对话的人用敬语. 不用‘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다.’而是为了对正在听对话的奶奶用敬语用 ‘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敬语的种类有用于谓语句体的‘主体敬语法’. 就像前面我们看到的句子一样, 名词后面可以使用 ‘께서’或之后在谓语句中使用‘(으)시’. 或者是使用下面的‘편찮다’, ‘잡수다’等特殊词汇.

第二种方法是对听对话的人用敬语. 刚才听对话的对象是奶奶. 所以就像用 ‘습니다’一样, 可以使用‘습니다’等语法. 动词活用形态发生变化的部分是词尾. 可以通过不同的终结词尾表示尊敬. 韩语中‘相对敬语’特别发达. 相对敬语是说话的人对听对话的人用或者不用敬语的方法. ‘수지야, 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 因为这是对秀智说的, 所以我们可以用平语说‘없어’. 但是不能对奶奶说‘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应该说‘할머니, 안나는 지금 집에 없어요.’ 像这样相对敬语通过谓语句的词尾变化表现出来.

相对敬语中需要考虑的是根据我们说话时是正式的情况还是非正式的情况来使用的敬语也会有所不同. 例如在正式场合说话时是需要遵守礼仪和规矩的情况. 是在公共场所或职场等正式场合上说话.

‘格式体’是在说让对方坐在某个位置的时候需要说 ‘앉으십시오’, ‘앉으시오’等敬语的场合上说的话. 使用这样的表达方式, 可以表现出非常客观端庄的感觉. 如果不对对方用敬语的情况, 可以说像‘앉게’, ‘앉아라’一样的话. 相反, 说 ‘非格式体’的情况是我们不用非常讲礼仪和规矩的场合. 主要用于日常或个人谈话情况. 一般‘아요/어요’是用于说敬语的情况, 像‘아/어’一样的平语是非格式化体用于不用说敬语的情况. 并且‘아요/어요’给人以非常主观和柔和的感觉.

在韩语中使用特殊的词汇通过提高对方身份或降低自己身份来表达对对方的尊敬. 例句中 ‘할머니, 차 드세요’中出现了表达尊敬的特殊词汇. ‘드세요’是‘마시다’的敬语. 还有‘계시다’是什么意思呢? 是‘있다’的敬语.

让我们再来看一下这些敬语吧. ‘드리다’是‘주다’的敬语, ‘모시다’是‘데리다’的敬语. 还有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中的‘성함’是什么呢? 是的, 是名字. 然后 ‘선생님, 생신이 언제입니까?’中在‘선생’上加上‘님’. ‘생신’是生日的敬语.

话行是指语言行为, 也叫发话行为. 是通过语言实现的行为. 从屏幕中显示的图片来看, 两个人在门前一个人因拿着沉重的行李所以向对方请求帮助开门. 提出这种要求时, 对方听到对话后会做出某种行动. 在提出这样的要求时, 我们要考虑影响话行的因素. 可以与考虑对话的人的关系是否亲密, 亲密程度如何. 第二, 可以考虑我的地位, 权力, 能力. 然后对请求的内容, 对方收到请求时的感受到的负担程度的话行, 即说话时使用的表达方式也会有所不同.

来看一下请求话行. 跟朋友借钱的时候, 怎么说呢? 请大家先考虑一下. 我给大家看一下我可以说的这四种方法. 就像在屏幕上看到的那样有这样的四种说法, ‘준수야,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2만 원만 빌려줄래?’, ‘2만 원만 빌려주면 좋겠어.’

像这样朋友之间的借钱的说法也可以用多种方式表达. 因为是好朋友, 所以可以直接说 ‘빌려줘.’ 但是如果不太熟的话, 就很难说出口了. 像这样, 即使是同样的请求, 根据亲近程度, 可以使用的表达方式也会有所不同.

如果不熟的话, 可以小心翼翼地问 ‘빌려줄 수 있을까?’ 问一下可能性. 也可以像 ‘빌려줄래?’ 一样询问朋友的意志. 或者可以像 ‘네가 빌려주면 좋겠다.’ 一样表达自己的期望. 如果是特别要好的朋友可以选第一种方法. 如果不熟的话, 应该使用第2, 3, 4种方法.

前面讲的是借钱的情况. 像屏幕上出现的句子一样, 也可以说 ‘준수야,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2만 원만 빌려줘.’ ‘미안한데 2만 원만 빌려줘.’ ‘미안한데 내가 현금이 없어서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前面的例句中只说了借钱, 没有给出借钱的理由. 但是也可以像第5句话一样先说出理由再借钱. 就像第六句一样 ‘미안하다’ 是为了减轻听对话的人的负担可以先说 ‘미안하다’ 然后再借钱. 也可以像最后第七句话这样说, 即减轻对方的负担又说明我借钱的原因.

这样比较一下的话, 说 ‘2만 원만 빌려줘.’ 和说出理由后再说像 ‘미안하다’ 这样, 可以减轻听者的负担的表达方式时听的人的心情会怎么样呢? 我们在提出要求的时候如果对方关系好的话可以只说要借钱. 但是不太熟或者想说得委婉一点的时候可以使用说明理由或者减轻对方负担的表达方式, 我认为可以更加恭敬柔和地传达自己的想法.

接下来看一下拒绝话行. 拒绝朋友借现金时的情况. 朋友说 ‘준수야,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的话. 俊秀回答 ‘안 될 것 같아.’ 的话, 由美的心情会怎

样呢? ‘나도 지금 현금이 없네.’ ‘미안해.’, ‘미안한데 나도 지금 현금이 없네.’可以这样回答.

各位, 根据两人的关系可以使用的表达方式也不同. 因为是朋友, 年龄又相仿. 根据亲密度不同, 使用的表达方式也会有所不同. 2万韩元对对方的负担也会根据情况有所不同. 但是如果金额比2万元还要大的话就可能会成为有负担的请求. ‘안 될 것 같아.’这样直截了当地拒绝时, 由美可能会受到很大的伤害. 或者像第二句话一样‘나도 지금 현금이 없다.’说明自己拒绝的理由, 然后道歉道‘미안해.’ 像‘미안한데 나도 지금 현금이 없다.’一样可以说出自己的理由.

第一种方法是非常果断的拒绝. 第二种方法是提出理由, 第三种方法是道歉. 第四种方法是道歉并说明理由. 各位, 即使是好朋友, 如果直接拒绝道‘안 될 것 같다.’的话, 感觉会非常伤人自尊. 我们只要听到‘미안해.’作为对拒绝的回应时, 就会很好奇, 可能会想‘왜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지?’ 所以最恰当的拒绝方法就是说出理由或者是道歉并说出理由, 这是一种非常好的拒绝方式.

本次讲座中, 我们了解了韩语的助词, 时态, 否定, 敬语和话行重要的概念或内容.

3차시 현대 중국어 개관/现代汉语的概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현대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알아보고, 한국어 문법과의 대조 분석을 통해 두 언어의 문법적 차이점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대 중국어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어는 한민족(漢民族)의 언어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는 현대 한민족(漢民族)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중국어는 여러 가지 방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공통어도 있습니다. 현대 중국어로서의 한민족(漢民族) 공통어는 북경 발음을 표준음으로 삼고, 북방어를 기본 방언으로 하며,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하는 표준어입니다.

이 짧은 세 구절에는 사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북경 발음을 표준음으로 하는 것은 현대 중국어 표준어의 음성적 특징인데, 즉, 현대 중국어 발음은 북경 지역의 발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북경 발음이 반드시 표준 현대 중국어 발음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북경 지역에도 북경 토속어와 같은 방언 발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많은 발음은 표준어의 발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현대 중국어는 북방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현대 중국어의 어휘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 남방과 북방 지역의 방언은 그 차이가 매우 큼니다. 특히 북방 방언을 쓰는 지역이 더 광범위하고 영향력도 더 큼니다. 이에 북방 방언은 자연스럽게 현대 한민족(漢民族)의 공통어, 즉 표준어의 기본 방언이 되었습니다.

셋째, 모범적 현대 백화문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채택한 것은 현대 중국어의 문법적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어의 문법적 구조는 매우 큰 변화를 겪었는데, 고대 중국어, 즉 문언문은 현대사회에서 중국인들이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족공통어로 표준어는 현대 백화문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현대의 민족공통어인 표준어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먼저 현대 한민족(漢民族) 공통어의 발전·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민족공동체가 통용하는 언어로서 민족공통어는 현대사회의 산물이 아니고, 고대 중국에서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한족은 선진시대에 고대 민족공통어가 존재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언'(雅言)이라고 불렸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한민족(漢民族) 공통어는 '통어'(通語)로 불렸다가 명대에 이르러서는 '관화'(官話)로, 신해혁명 이후의民国시기에는 '국어'로, 1949년 중화

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보통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 과정을 통해 한민족(漢民族) 공통어는 중국 역사에서 늘 존재해 왔고, 다만 시기별로 명칭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국 한민족(漢民族)의 공통어는 '보통화'입니다.

앞서 한민족(漢民族) 공통어의 발전과정을 설명했는데,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민족(漢民族) 공통어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언, 통화, 관화, 그리고 국어는 모두 한민족(漢民族) 공동체의 공통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말하는 보통화는 한민족(漢民族)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공통어 외에도 중국어에서는 많은 방언이 존재하는데, '지방어'라고 불립니다. 중국어의 방언은 일정한 지역에만 통용되고, 민족어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중국어의 방언도 오랜 변천 과정을 거쳤는데, 현재로서 중국어의 방언은 기본적으로 7개 방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7개 방언은 각각 북방방언, 오방언, 감방언, 상방언, 객가방언, 민방언, 월방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바로 현대 중국어 7대 방언 분포도입니다. 이 분포도는 각 방언의 주요 분포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언은 일정한 지역에서만 통용되고, 민족 언어와는 독립된 다른 언어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방언을 살펴보지 않고 주로 현대 한민족(漢民族) 공통어인 보통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현대 한민족(漢民族) 공통어인 보통화를 '중국어'로 부릅니다.

현대 중국어 보통화는 한민족(漢民族)의 공통어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음성, 어휘, 문법 세 가지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성적 측면에서는 현대 중국어에는 복자음이 없고, 모음이 많고, 성조가 있습니다. 둘째, 어휘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어 형태소는 단음절을 기본 형태로 하고 있고, 신조어 구성에 있어 어근 복합법이 많이 사용되고, 이중음절어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적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중국어의 어순과 허사는 중국어의 주요 문법 수단이며

단어, 구 및 문장의 구조 원칙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은 서로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고, 양사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현대 중국어는 많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 중국어의 특징을 음성, 어휘, 그리고 문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께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한 후,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과 대조하여 살펴볼 것이고, 양국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깊이 이해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주차별 학습 내용/每周教学内容安排

현대 중국어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본 후 이어서 각 주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중국어 음성의 특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음성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 소리를 말합니다. 표의문자로서 한자는 일정한 체계의 상징적 부호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그럼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어 발음은 어떻게 표시되어 왔을까요?

중국인은 어려서부터 한어 병음을 배우게 됩니다. 외국인도 중국어를 배울 때 반드시 한어 병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한어 병음은 무엇이고, 한어 병음 방안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한어 병음 방안을 간단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중국어의 음성은 주로 몇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중국어에서 운두(韻頭), 운복(韻腹), 운미(韻尾)는 무엇을 가리키며, 또 어떻게 구분하는가? 또한 중국 전통 음성학 연구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은 자주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무성음과 유성음은 무엇인가? 이외에 중국어 성모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z와 zh, c와 chi, s와 sh 등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음성 관련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중국어 음성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성을 대조분석할 것입니다. 대조분석을 통해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ㅂ, ㅍ, ㅃ’가 왜 헛갈리는지, 또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왜 항상 혀가 말리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2주차의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중국어의 음성을 알아본 다음에 3주차에는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성조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음절 구조란 무엇인지, 음절 구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성조입니다. 그래서 성조란 무엇인지, 중국어에 왜 성조가 있는지, 성조의 의미는 무엇인지, 중국어에 어떤 성조가 있고, 각 성조의 성조 값은 어떠한지, 성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또, 중국어의 발음은 실제의 대화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 중국어에는 어떤 음운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경성’과 ‘얼화(儿化)’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환경에 따라 성조가 바뀌는 현상을 변조라고 합니다. 현대 중국어에는 어떤 변조가 있는가? 음절 구조를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어의 음운변화는 주로 성조의 변화인데, 그러면 한국어의 음운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주차의 학습을 통해 앞에서 말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2주차와 3주차 강의 내용은 주로 음성 관련 내용입니다. 4주차부터는 문장 측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4주차의 주요 학습 내용은 중국어의 문장 구조와 어순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데 이들 중 많은 언어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언어를 분류하면 어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몇 가지 유형의 언어 중에서 중국어는 어떤 유형의 언어에 속할까요? 또 언어에 따라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인은 '我吃饭'라고 하지만 한국인은 '나는(我) 밥을(饭) 먹는다(吃)'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 무엇일까요? 또한 중국어의 어순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我吃饭'는 '我饭吃'로 바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我爱你'와 '你爱我'는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중국어의 어순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하나의 문장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어의 기본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중국어로 표현할 때 한 문장이 너무 길면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간격이나 표기 부호를 넣게 되는데 이것이 중국어의 문장 부호입니다. 중국어의 문장 부호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중국어의 어순과 문장 성분을 알아본 후, 우리는 한-중 대조 분석의 관점에서 중한 기본 어순이 어떻게 다른지, 중한 보어가 같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한 문장부호를 대조분석하여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4주차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 문장성분에 대해 비교적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주차에는 중국어의 품사를 분석하고, 주로 중국어의 동사와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을 알아볼 것입니다. 모든 언어에는 나름의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은 무엇이고, 중국어는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동사는 품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중국어의 동사는 어떤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중국어의 동사 중 매우 중요한 유형은 능원동사인데 중국어의 능원동사는 무엇이고, 어떤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형용사도 품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과 '구별사'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어의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을 파악한 후 중한 동사와 형용사를 대조분석해 이들의 특징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중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중·한 대조의 관점에서 중국어의 능원동사는 한국어의 어떤 품사에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주차 학습을 통해 우리는 중국어 동사와 형용사의 주요 문법적 특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한 동사와 형용사의 대조적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주차에 우리는 주로 중국어의 접속사와 전치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앞의 품사 분류를 통해 우리는 중국어의 전치사가 허사의 일종에 속하고,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단지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전치사는 주로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할까요? 중국어 전치사의 문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중국어 동사와 형용사는 대부분 중첩될 수 있는데 중국어의 전치사도 중첩될 수 있을까요? ‘小明不在家’와 ‘书在桌子上放着’에서 ‘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어의 접속사는 무엇을 가리키고, 중국어의 접속사와 전치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중국어 전치사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한 후, 중·한 대조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어 전치사가 한국어의 어떤 품사에 대응하는지, 중국어 전치사와 한국어 조사의 통사적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중국어의 전치사들끼리는 결합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어의 조사들끼리는 결합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중국어 전치사는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일일이 대응할까요?

6주차 학습을 통해 중국어 전치사의 문법적 특징, 그것이 한국어의 어떤 품사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주차에는 중국어의 시제와 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중·한 시제와 상의 대조적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시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중국어에는 시제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둘째, 동태조사는 중국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중국어의 동태조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중국어에는 어떤 동태조사가 있고, 각 동태조사는 어떤 문법적 특징을 지닐까요? ‘了’는 중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동태조사입니다. 그럼 동태조사 ‘了’는 어떤 문법적 특징을 가질까요? 마찬가지로 동태조사 ‘着’와 ‘过’는 어떤 문법적 특징을 지닐까요? 중국어 동태조사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본 후, 우리는 중·한 대조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중국어 ‘了’는 과거 시제 표현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了’와 한국어의 과거시제는 어떤 대조적 특징이 있을까요? 중국어에서 미래시제 즉, 미연시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중국어에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过’는 한국어로 어떻게 대응될까요? 7주차에는 중국어 시제와 상에 대한 학습을 통해 중국어 동태조사의 문법적 특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한 시제와 상에 대한 대조적 특징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주차 학습 내용은 중국어의 부정 표현입니다. 부정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범주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부정표현은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중국어 부정부사 ‘不’의 문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중국어 부정사 ‘没’의 문법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중국어의 ‘不’와 ‘没’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중국어 부정 표현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본 후 대조의 관점에서 중한 부정표현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한 부정 표현은 형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중한 부정사의 통사적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중국어의 가능보어 구조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중국어 부정사 ‘没’과 한국어 부정사 ‘못’은 어떻게 다를까요?

8주차 학습을 통해 중국어 부정표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중한 부정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주차 강의 내용은 중국어의 존댓말과 호칭어입니다. 존댓말은 무엇일까요? 현대 중국어의 존댓말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경점사란 무엇을 말할까요? 중국어에서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형은 무엇일까요? 한국어는 존댓말이 비교적 발달한 언어이고, 존댓말이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한 존대 표현의 공통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어 존대 표현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중한 호칭어는 어떤 대조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9주차 학습을 통해 우리는 중한 존댓말의 대조적인 특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주차에는 중국어의 거절 화행과 요청 화행을 살펴볼 것입니다. ‘거절하기’와 ‘요청하기’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발화 행위입니다. 요청 화행은 무엇일까요? 중국어 요청 화행의 기본 구조는 무엇일까요? 중국어의 시작행위어와 보조행위어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중국어 중심행동어에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거절 화행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진짜 거절’과 ‘가짜 거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요청 화행은 언어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중한 시작행위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한 보조행위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10주치의 학습을 통해 중국어 거절 화행과 요청 화행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중한 거절 화행과 요청 화행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